# 한인뉴스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재인도네시아한인회

2024
VOL. 331

haninnewsinni@gmail.com

MU GUNG HWA
KOREAN SUPERMARKET & DISTRIBUTOR
무 궁 화 유 통
SINCE 1980

# 인도네시아 어디든!
# 무궁화가 함께하겠습니다.

2024년 청룡의 해,
특별한 순간들로 가득차길 기원합니다.
무궁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 무궁화 지점

스나얀 / 땅그랑 / 찌까랑 / 다르마왕사 / 끌라빠가딩 / 찌부부르 / 뽄독인다 / Apt.아마르타뿌라 / 발리 / 반둥/ 반둥 꼬따바루 / 바탐 빈따로 / 솔로 / 가딩세르퐁 / 즈빠라/ PIK / 플루이트/ 뉴턴1 / 끄본즈룩 / 쯤빠까마스 / 메단 / 스마랑/ 수라바야/ 족자카르타 / 찔레곤 쁜띠아낙 / 빈탄 / 팔렘방 / 뽄독베낭 / BSD / 발릭파판

## 무궁화 계열사

PT.BUMI TOUR / PT.PRIMA MUDA CONSTRUCTION / PT.INDO BUMI RETAIL / PT.BUNI INDAH MAKMUR / PT.PERKASA INDAH SECURITY
K-FOOD by. MU GUNG HWA / BON BREAD / KOT · GIL


www.mugunghwa.co.id
@mugunghwa_id
mghgood@gmail.com

본사 : 021) 722-2214
가맹문의 : 0811-870-386


### 인도네시아 최대 한국식품 수입사

인도네시아 유통중인 전체 한국식품의
50% 이상을 무궁화유통에서 수입
인도네시아 전 지역 10,000여개
현지 매장 한국 식품 유통

수입식품허가(ML) 등록 2,000건 이상

### 가치 창조

한국식품 신규 시장,
인니 시장 개척과
수출의 교두보

### 사회 공헌

심장병 어린이
의료 지원 및 봉사
지역사회 구호활동

### 한식 문화 전파

무궁화 가맹점
확대를 통해
한국 식문화를
인니 전역에 전파

# 현대차와 함께하는 2024 새해의 시작
# 특별 구매 혜택을 지금 만나보세요

## 특별 금융 프로그램*

**50%*** 유예할부

**3개월*** 거치 할부

**초저금리*** 할부

*특정 모델 또는 지역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판매 및 서비스 문의]
- 현대자동차 콜센터 (0-800-1-878-878), 한국어 서비스 3번 선택 / 한국 교민전담팀 대응
- 자세한 내용은 현대차 홈페이지 (www.hyundai.com/id) 를 참조하세요

[한국인 금융상담]
- Sunindo KB Finance : +62 813-1696-2061 왓츠앱 문의
- 신한은행 : 1500881 또는 카카오톡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채널 검색

HYUNDAI

Call Center: 0 800 1 878 878 (Toll free 24 hours) www.hyundai.com Hyundai Motors Indonesia @hyundaimotorindonesia Hyundai Motors Indonesia @hyundaimotorid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Best Quality & Delivery*

## MACHINE CAPACITY

### Factory 1

- LDPE Extruder 8 Sets, Emboss Roller 3 Sets
- Sealing Machine 7 Sets
- HDPE Extruder 5 Sets, Emboss Roller 1 Set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1 Colour 1 Set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2 Colour 1 Set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3 Colour 1 Set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4 Colour 2 Sets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5 Colour 1 Set
- PP Strapping Band Extruder 2 Sets
- Mixing Machine 2 Sets
- Side Seal Machine 4 Sets
- Crusher Machine 4 Sets
- Hanger Machine 4 Sets

### Factory 2

- LDPE Extruder 12 Sets, Emboss Roller 5 Sets
- Sealing Machine 10 Sets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1 Colour 1 Set
- Rotogravure Printing Machine 2 Colour 4 Sets
- Flexo Printing Machine 2 Colour 2 Sets
- PP Extruder 4 Sets
- Crusher Machine 1 Set
- Side Seal Machine 5 Sets
- Hanger Machine 5 Sets
- Mixing Machine 2 Sets
- Roll Bag Machine 1 Set
- HF PVC Machine Welding 5 Sets
- Corona Treatment 3 Sets
- Slitting Machine 1 Set

## PRODUCT

- Polybag (LDPE, PP, HDPE), (5cm, 280cm width)
- All Kind of Shopping Bag 5 Colours Printing
- PVC Bag
- Garbage Bag
- PP Strapping Band (PP Band)
- OPP Bag
- Zipper Bag
- Emboss Roll Bag
- Roll Bag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MARKETING OFFICE
Kawasan Berikat Nusantara (KBN)
Jl. Sumatera Raya E-04, Cakung Cilincing Jakarta Utara
Telp : 62-21-440-3926 (hunting), fax : 62-21-440-3944

Email :
bhjangjkt@gmail.com (Jang Bong Hee)
kenleejh@gmail.com (Lee Joo Hun)

PT. BOSUNG INDONESIA

## PT. BOSUNG INDONESIA

CORRUGATED SHEET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INNER BOX

<제품안내>
종이 골판지 생산
카톤박스
포장용 박스
종이 쇼핑백

포장재 전문회사 보성인도네시아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amatan Pasar Kemis Tangerang Banten15560,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021) 5935 1001 (hunting)
Fax. (021) 5935 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T. TAEWON INDONESIA

## PT. TAEWON INDONESIA

CORRUGATED | CARTON BOX | INNER BOX | OFFSET PRINTING | PULP MOLD

Jl. Raya Industri Selatan 1, Blok LL-6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Cikarang Bekasi 17550
E-mail : sales@taewon.co.id Tel. (021) 8948 1234 Fax. (021)8984 1133/1134

# PT.HANINDO EXPRESS UTAMA

##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물류 운송과 PROJECT CARGO 운송 전문업체**
**HANINDO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SINCE 1993)**

### 업무 안내

- 수출입 화물 해상, 항공 운송
- 수출입 화물 통관 (EDI ON - LINE) 및 내륙 운송
- PROJECT CARGO 및 건설 장비 운송
- 특수 장비 국내외 운송
- LCT / BARGE TRANSPORTATION
- 해외 이주 화물 (이삿짐) 운송 및 통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CT Transportation**

**BARGE Transportation**

**COLUMN Transportation**
**(L X W X H @ 52.0 X 2.1 X 2.1 M)**

**REACTOR Transportation**
**(L X W X H @ 35.0 X 7.95 X 8.45 M)**


Granadi Bldg 7th Fl. South Wing, Jl.HR.Rasuna Said Kav 8-9,
Jakarta 12950 Indonesia
E-mail : hanindo@hanindo.net
Website : www.hanindoexpress.com
Telp : (62 21) 2525-123, Fax : (62-21) 2520-551, 2520-556
HP : 081-848-5570 (Mr. CHO) Hp : 0811-816-0627 (Mr. SHIN)


**항상 고객으로부터 믿음과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 월간 한인뉴스 1 2024

##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표지 사진 이야기:

인도네시아 천개의 섬 중 무인섬 Bidadari섬을 2023년 9월에 다녀왔다. 마침 해뜨는 장관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여행에서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여행지는 스리부 제도의 섬들로 천 개의 섬(Thousand Island)이라 부르며 인도네시아어로 케풀라우안 스리부 (Kepulauan Seribu)이다.
천개의 섬이라 하여 천개의 섬이 있는 줄 알 았는데 천개는 아니고 342개가 있는데 이 중 13개 섬만 개발되어 사람들의 휴양지가 되고 있다.
스리부 제도는 자카르타 해안의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섬에 가려면 안쫄유원지에 있는 마리부 부두 선착장에서 스피드 보트를 타고 가야한다.

양진영 (Krakatau Posco)

10
2024 신년 휘호
여룡포신 〈김도영〉

12
2024 신년사
〈박재한, 이상덕, 이강현, 승은호〉

20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2024년 인도네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22
[김재훈의 '세무 TALK']
2024년 세무전망

24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 contents

2024. 1. 통권 331호


28
한 인니 수교 50주년 경제 포럼

30
"〈맨발의사나이〉는 아픈 지구
얼음은 녹고 있는 빙하"

31
2023 하반기 팀코리아 간담회

32
[여기가 맛집]
Busaba A Thai
〈황지영〉

35
[신년 시]
그리운 안쪼 〈김준규〉

36
[배동선 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5]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40
[서상영의 한방칼럼 9]
면역이야기2

44
[행복에세이]
시작의여정 〈한화경〉

46
[반짝이는 그림책 이야기]
내가 지키고 싶은 소중한 선물
〈김별님〉

50
제 104회 전국체전 해단식 및
회장 이취임식

52
한국인과 재인도네시아 한국인,
한국계 인도네시아인 〈조연숙〉

55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2023년 4분기 정기회의 및
송년회개최

56
[JIKS 소식]

57
월드옥타 자카르타지회 송년회 및
정기총회 개최

58
[디카시 풍경]
천눈 〈김주명〉

59
한국문인협회 2023년
한국문학상 시상식 (3차)

60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신성철〉

64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29)
인도네시아 헌법
〈이승민〉

66
일상생활 속 BAHASA

68
[반려동물 랜선집사]
떡실신 햄스터
〈한동훈 & 한예성〉

76
생활정보

謹賀新年

# 与龍布新(여룡포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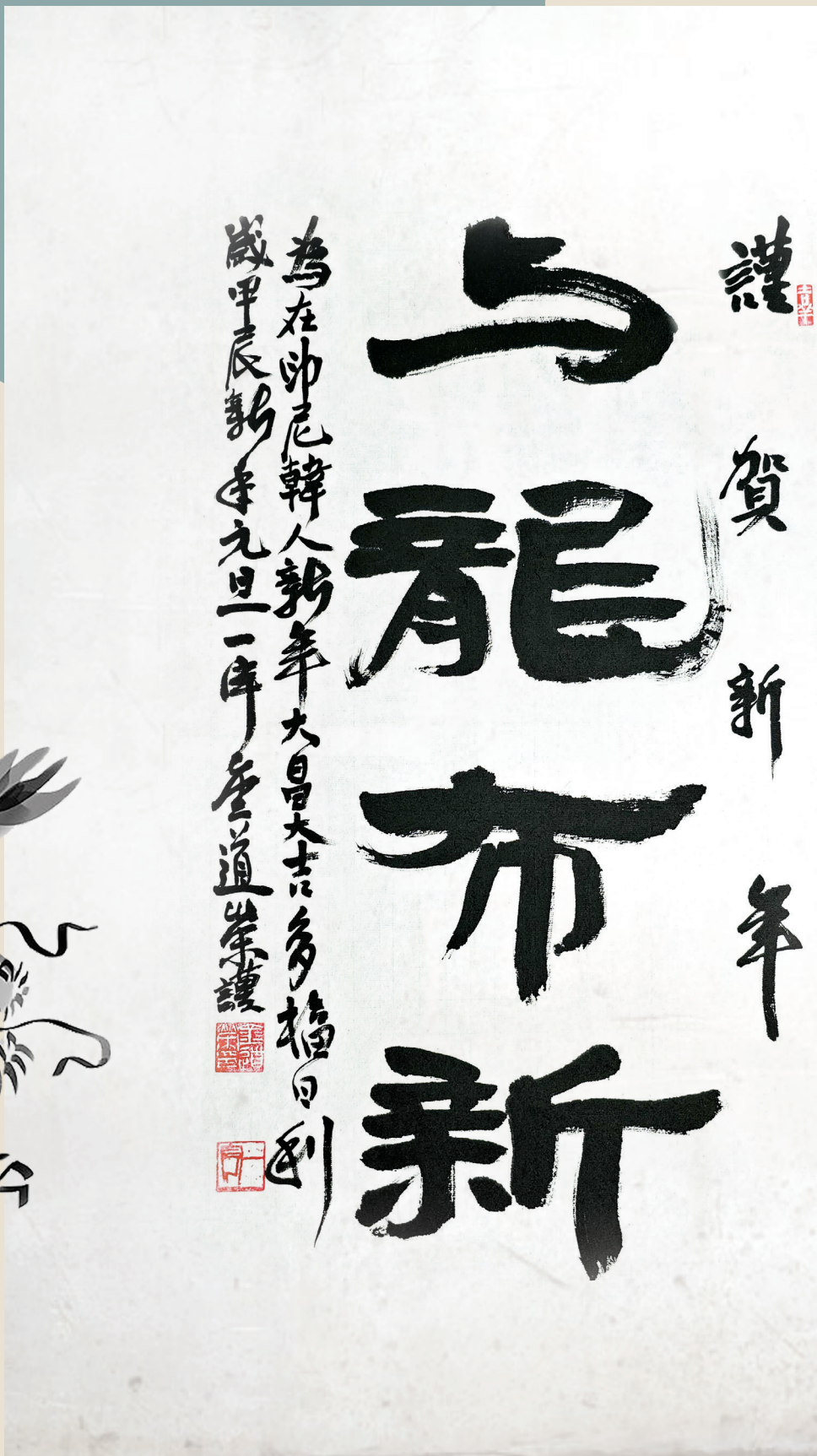
## 용의 해와 더불어 새로움을 펼치소서!

**謹賀新年, 爲 在印尼 韓人 新年大昌大吉多福一利**
근하신년, 재인도네시아 한인 모두 신년에 대창대길하시며 다복하심이 날로 더하시길 빕니다.

갑진년 새해아침 일우 김도영 삼가

일우 김도영 (**一宇 金道榮**)
– 서울서예대전 입상 다수. 동 초대작가
– 대한민국서예대전 입선 2회 특선 3회. 동 초대작가
– 한글서예초대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해외 동포전 등 다수 출품
– 인니 한인서협 자필묵연 회원 및 회원전 다수
– 사)한국서협 인니 지회회원

2024
신년 휘호



# 2024 박재한 한인회장 신년사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가족 여러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한인사회의 다양한 행사와 한인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크고 작은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 한인동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인회는 공동체 모두의 이해와 유익을 위한 과제들을 올해도 변함없이 소통과 협의로 풀어갈 것 입니다.

지난 2023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한 지 5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한인회에서는 양국 국민들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함께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골프 3종목의 경기를 겨루는 <한-인도네시아 우정의 레이스>를 통해 한인과 인도네시아인들이 서로를 응원하며 친밀감을 형성하였고, 수디르만 길을 함께 달리며 휴지를 줍는 <그린 런> 플로깅 행사를 통해 인도네시아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인니수교 50주년 기념음악회’에서는 국경과 세대를 초월한 정서로 하나 됨을 느꼈습니다. 또한 인니어판 한-인니수교 50주년 기념책자 『Mera-jut Persahabatan Memupuk Kepercayaan(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한·인니 수교 50년사)』을 출간하여 한·인니 교류의 역사와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이야기를 담아 새로운 50년을 향한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정식 외교관계의 시작인 1973년 9월 18일이래, 양국이 성장통을 겪으며 나름의 우여곡절의 역사를 써내려갔지만, 양국의 관계는 차곡차곡 우정을 쌓아가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이 벅차게 다가왔던 한 해였습니다.

한인회는 2020년 즈음, 지난 100년간 인도네시아 한인의 분야별 발자취를 총망라한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의 출간을 위해 역사적 의미가 있는 현장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 이후 줄곧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이 땅을 밟은 한인군속들이 고려독립청년당을 결성한 곳인 수모워노(Sumowono)를 비롯한 암바라와 일대의 역사적 현장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울림처럼 퍼져갔습니다.
저희 한인회는 태평양전쟁 피해자 추모비를 세우고자 스마랑 한인회와 함께 뜻을 모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누구도 보호받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분들의 용기와 희생을 눈감았던 시절에 대한 미안함으로 올해 한인회에서는 현재만 보는 1차원적 시점에서 벗어나, 미래세대인 한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역사탐방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인동포 여러분!
여러 측면으로 새해에도 체감경기는 더욱 나빠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치열하고 복잡할수록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나와 또 공동체를 위한 작은 일부터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귀한 시절을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각자의 목표를 향하는 그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동포사회에는 웃음과 여유 그리고 미담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동포여러분의 가정과 직장마다 기쁨과 만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 박재한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지난 2023년 인도네시아의 우리 한인사회는 국제 정치 · 경제적 긴장과 불확실성이 가중된 복합위기 속에서도 서로 단합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저력을 아낌없이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연중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님의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까지 성사되는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100년여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동포사회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보여준 에너지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앞으로 50년, 100년간 함께 나아갈 여정에 있어서도 든든한 반석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작년 9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제조, 봉제, 신발 등 전통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을 넘어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 첨단 미래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지난 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2024년에는 양국이 명실상부한 '특별전략적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2045년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및 적극적인 경제 · 사회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2월에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여 차기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사관은 동포사회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국가발전 목표를 지원하는 한편, 신정부와도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진출 기업 및 동포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경제 · 사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사관은 '팀 코리아'의 기치하에, 공공기관, 동포사회, 진출기업 등이 함께 서로의 생각과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들을 합심하여 풀어 나가는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2024 이상덕 대사 신년사

본국 정부는 작년 6월 750만 재외동포의 염원을 담아 재외동포청을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재외동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다 양질의 영사서비스가 동포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실시됩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선량을 뽑는 소중한 선거에 여러분들의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을 맞이했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이 용의 기운을 받아 순조롭게 풀려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 이상덕

안녕하십니까,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기업인을 비롯한 존경하는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세계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따른 아세안 핵심 국가이자 미 · 중 전략 경쟁의 심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 외교 다변화를 추진할 중요한 파트너국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많은 한국 기업의 진출과 기업인들 방문 러시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현지에서 기업을 운영 중이신 분들은 봉제 · 신발을 비롯하여 무척 어려운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으며,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역량과 결집을 바탕으로 청룡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도약하고 풍요와 번영을 이루는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 2024 이강현 코참회장신년사

올해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성장 둔화로 인해,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도네시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5.0%의 경제성장률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45년까지 세계 5대 경제진입을 목표로 인적 자원 개발과 보건복지, 인프라 확장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2월 14일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절대적 우위에 있는 후보의 부재로, 대선 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책 개혁 방향성과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차기 정부의 의지를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자국 역량 강화를 위해 수입규제를 확대하고 국산 부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예정인 수입인증제도 확대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여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코참은 올해 대선 결과에 따른 여러 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정부 채널 네트워킹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진출하고 있는 대기업들과 현지 토착 기업들이 서로 화합하여 인니 정부에 하나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결집력을 배가시키겠습니다. 신규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여 아세안 지역을 비롯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상생을 위해 인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1기업 1지역 지원프로그램 등 CSR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코참은 한인 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계속하여 이어갈 것이며,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인 동포사회가 더욱 결속력있고 성숙한 사회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겠습니다. 지난 한 해 코참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한인 기업인 및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제는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Go Global, KOCHAM Together!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이강현

# 2024 승은호 코린도 그룹 회장 신년사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2024년 희망찬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교민 사회는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간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와 행사가 개최되었고, 만족할 만한 결과와 보완해야 할 과제도 도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행사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어도 잘 구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양국의 미래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 교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사를 이끌어가는 모습 속에서 인도네시아 교민사회의 밝은 미래도 보았습니다.
뜻깊고 의미 있는 수교 50주년 한 해를 우리는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혼돈과 끝나지 않은 경기 침체라는 악재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대선을 포함한 굵직한 정치 이슈가 있어 작년 못지않은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듯합니다.

지난 백여 년간 숱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한인 동포 사회를 만든 우리 인도네시아 교민들은 올해도 슬기롭게 잘 이겨 내리라 믿습니다.

2024년은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은 가정의 복을 기원하고 재앙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고귀한 존재라고 합니다.
청룡의 기운을 받아 올 한 해도 교민 분들 가정과 직장에 복이 넘치는 기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린도 그룹 회장 승은호

# “2024년 인도네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논설위원 신성철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 3년이라는 긴 터널을 통과한 이후 보낸 2023년에 대중교통을 비롯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21세기의 대사건인 코로나 사태가 언제 있었는지 쉽게 망각할 정도로 모든 일상이 정상화됐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즈음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그에 뒤따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 침탈 등으로 2023년은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전쟁의 해’였고, 이에 따른 ‘경기 침체’의 해였다. 설상가상으로 엘니뇨 기후현상으로 인류의 삶은 더욱 팍팍한 한 해였다.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 50주년을 맞아 서로 축하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축제의 2023년이었다.

이제 어제를 돌아보면서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전망해 볼 때이다. 2024년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한인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먼저 2024년은 인도네시아 정치에 큰 전환점을 맞는 해이다. 2024년 2월 14일에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DPR), 지역대표회의(DPD) 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열린다. 2월 대선에서 과반 득표와 절반 이상의 주에서 20% 이상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를 놓고 2024년 6월 26일에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특히 대선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돼 국내외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2024년 11월 27일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주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전국 규모의 지방선거가 열린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방선서를 예정된 11월 27일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선만큼 중요한 인도네시아 국정 어젠다는 동부칼리만탄에 건설할 신수도 누산타라(Nusantara)의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일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이 꿈꾸고 있는 인도네시아 대국 만들기 사업 가운데 하나인 행정수도 이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장남 기브란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쁘라보워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기브란을 대선에 출마시켰다. 조코위는 2014년 독립기념일인 8월 17일 이전까지 행정부 일부를 옮기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내년 독립기념일 행사는 누산타라에서 거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십년이 걸릴 신수도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포석이다.

신수도 누산타라 1단계 사업의 목표는 2024년까지 대통령궁, 정부청사, 국회 등 정부 핵심기관을 이전하는 것이다. 2단계는 행정수도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와 교육, 의료, 상업시설 등 각각의 기능을 할 6개 위성도시를 2030년까지 개발하는 것이다. 이어 3단계 사업은 수도 확장으로 2040년까지 진행된다. 1단계 사업은 주로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사들이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2단계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상당한 부분이 완공될 것으로 보이나, 조코위 대통령이 지지하는 쁘라보워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당선될 경우 2024년부터 시작될 신수도 2단계 사업의 계획과 규모는 변경될 수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0%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4년은 올해보다 0.1% 포인트 하락한 2.9%로 예측하고 있다. 즉 글로벌 경제가 2024년에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과 관련, IMF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약 5%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도네시아의 경제 회복세가 비교적 강하다고 평가했다. IMF는 이어 인도네시아의 2024년 경제 성장률은 긴축 재정 및 통화 정책과 원자재 가격의 정상화로 인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 2023년 한국 ·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인도네시아인의 한국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거주, 근무해보고 싶은 인도네시아인 중 30%가 가장 선호하는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또 2023년 9월 인도네시아 대형 여행사 드위다야 투어가 실시한 2023 항공권 판매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인도네시아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관광지로 일본, 한국, 호주를 꼽았다. 이에 따라, 가루다항공은 지난 9월 2째주부터 인천-자카르타 노선을 기존 주3회에서 주4회로 증편했고, 2023년 12월에는 발리-인천 노선도 주4회로 증편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의 직항 편은 주 31회가 되면서 인적교류가 더욱 활기를 띌 전망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과 미국, 중국 등 20개국 관광객들에게 추가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2024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관광창의경제부는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를 인용, 2023년 상반기 동안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한국 관광객수가 14만5천 명으로 올해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낙관하면서 2023년 인도네시아 방문 한국 관광객수가 연간 목표치 19만5천 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주요 어젠다는 두 가지이다. 먼저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재외국민의 사전 신고, 신청을 당부했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2023년 11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이며, 재외선거 투표는 2024년 3월 27일에서 4월 1일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공관별로 투표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전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재외 공관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연말에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할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을 선출하는 한인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인회는 긴급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보여주었고, 2023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인사회 활동의 정상화와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한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했다. 새해에도 한인회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함께 헤쳐 나갈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

# 2024년 세무 전망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지난 11월 28일 인니 정부는 2024년 세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대통령규정 76/2023 호 (Perpres No.76/2023) 를 공표하였다.
대통령 규정 76/2023호는 주 수입 및 지출 예산의 세부 사항으로서 주 세입 예산, 주 지출예산 그리고 예산비(Pembiayaan Anggaran) 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첨부 1에 세수와 관련하여 나열되어 있고, 첨부 2는 비과세 수익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첨부 1에 언급한 세수와 관련한 항목으로 2024년 내국세 목표는 2,234 조로 2023년 세수 목표인 IDR 1,963 조보다 13.8% 증가한 수치이다.

(단위 : 천루피아)

| 구분 | | 2023 년도 | 2024년도 | 증가액 | 증가율 |
|---|---|---|---|---|---|
| 내국세 | | 1,963,482,528,000 | 2,234,959,385,000 | 271,476,857,000 | 13.8% |
| | PPh | 935,068,625,696 | 1,139,783,707,950 | 204,715,082,254 | 21.9% |
| | PPN/PPnBM | 742,953,614,644 | 811,364,991,993 | 68,411,377,349 | 9.2% |
| | PBB | 31,311,018,008 | 27,182,247,732 | - 4,128,770,276 | -13.2% |
| | Cukai | 245,449,751,000 | 246,079,440,000 | 629,689,000 | 0.3% |
| | Pajak Lainnya | 8,699,518,652 | 10,548,997,325 | 1,849,478,673 | 21.3% |
| 수출입세 | | 57,741,149,000 | 74,900,560,000 | 17,159,411,000 | 29.7% |
| | Bea Masuk | 47,528,459,000 | 57,372,542,000 | 9,844,083,000 | 20.7% |
| | Bea Keluar | 10,212,690,000 | 17,528,018,000 | 7,315,328,000 | 71.6% |

세부적으로 보면 PPh 세수는 IDR 1,139조 7883억으로 올해 목표인 IDR 935조686억 보다 21.9% 증가할 것으로 잡혀 있다. 이 수치는 석유 및 가스 PPh IDR 76.37조와 비석유 및 가스 PPh IDR 1,063.4조로 구성되어 있다.

부가세도 IDR 811조3660억을 목표로 하며 올해 목표 IDR 742조 9536억보다 9% 증액되었다. 반면 토지 및 건물 보유세(PBB) 는 IDR 27조 1822억으로 올해 목표 IDR 31조 3110억으로 줄어 들었다. 공시지가가 내려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PBB 를 낮춘 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조기 납부에 대한 할인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세뿐만 아니라 관세(BM) 부문도 IDR 57조 3725억으로 올해 목표 IDR 47조 5284억 보다 21%가 증액된 상황이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세(법인세) 세부내역은

(dalam ribuan rupiah)

| 구분 | 2023 예산 | 2024 예산 | 증가액 | 증가율 |
|---|---|---|---|---|
| PPh 21 | 172,132,898,339 | 215,215,682,962 | 43,082,784,623 | 25% |
| PPh 22 | 30,234,569,376 | 43,655,534,375 | 13,420,964,999 | 44% |
| PPh 22 Impor | 71,360,449,246 | 74,506,112,138 | 3,145,662,892 | 4% |
| PPh 23 | 46,189,131,774 | 64,141,184,231 | 17,952,052,457 | 39% |
| PPh 25/29 OP | 13,688,711,940 | 12,792,761,224 | - 895,950,716 | -7% |
| PPh 25/29 Badan | 349,931,391,048 | 428,594,874,661 | 78,663,483,613 | 22% |
| PPh 26 | 71,420,330,927 | 86,249,818,970 | 14,829,488,043 | 21% |
| PPh final | 118,527,158,341 | 138,122,820,598 | 19,595,662,257 | 17% |
| PPh lainnya | 142,869,060 | 131,123,712 | - 11,745,348 | -8% |
| totoal PPh non Migas | 873,627,510,051 | 1,063,409,912,871 | 189,782,402,820 | 22% |
| | | | | |
| PPh Migas | 61,441,115,645 | 76,373,795,079 | 14,932,679,434 | 24% |
| | | | | |
| Total | 935,068,625,696 | 1,139,783,707,950 | 204,715,082,254 | 22% |

DKI 자카르타 주정부 최저임금 인상율은 3.6%에 불과하고 소득세율인상도 없는 상황에서 갑근세 증가액을 43조 (2023년대비 25% 증액)로 증액한 것은 무엇보다도 202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PMK 66/2023 규정(회사가 제공하는 현물 및 향응에 대한 소득세 처리에 관한 시행령)이라 할 수 있다. (PMK 66/2023은 한인뉴스 2023년 8월 참조)
또한 기업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PPh25/29 Badan)도 79.66조(22%증액)로 증액되었다.
무엇보다도 금년에 선거 등 지출 예산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 정부 수입의 75%이상이 세금으로 충당하여야 하기에 예상된 결과라 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금년도 세수 목표를 정하고 있기에 기업들의 세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SP2DK를 통하여 자진 납세를 유도와 세무조사 등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끝>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정치, 사회>

# [2024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 심층 분석

## '인권침해, 민주주의, 기브란 부통령 후보' 주요 쟁점으로 부상

내년 2월 14일 치러지는 인도네시아 대선을 앞두고 첫번째 대통령 후보 TV토론회가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 청사에서 열렸다. 3명의 대선 후보가 각축을 벌이면서 2시간 동안 날선 공방이 오갔다.

사법, 부패, 인권, 민주주의 및 통치방식 등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대선 후보 기호 1번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 기호 2번 쁘라보워 수비안또 국방장관 겸 그린드라당 총재 그리고 기호 3번 간자르 쁘라노워 중부자바 주지사가 무대에 올랐고, 각 지지자들이 청중으로 참여했다.

토론 무대에 오른 아니스 후보는 양복과 무슬림이 쓰는 모자인 빼찌(peci)를 써 지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쁘라보워 후보는 정장바지에 하늘색 긴팔 남방을 입어, 강인한 인상을 주는 군인에서 친근한 동네 아저씨로 이미지를 바꾸려는 시도를 했다. 간자르 후보는 캐주얼 운동화에 정장 바지와 흰색 남방을 입어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내세웠다.

최근 대선 당선가능성을 묻는 주요 여론조사기관이 쁘라보워 후보가 아니스와 간자르 두 후보보다 20% 포인트가량 앞서고 있다고 발표한 직후 진행된 1차 대선 TV토론회에서 아니스와 간자르 후보는 협력이라도 하는 듯 쁘라보워 후보와 관련된 인권침해 혐의와 쁘라보워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 수라까르따(솔로) 시장의 부통령 자격을 놓고 쁘라보워 후보를 궁지로 몰았다.

먼저 아니스 후보는 쁘라보워 후보에게 최근 파푸아 지역에서 과격해지는 분리주의 움직임에 대한 미흡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아니스는 이어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야당의 지도자였던 쁘라보워 후보가 조코위 연립정부에 합류한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쁘라보워 후보는 자신이 아니스 후보를 지난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조코위 정부가 독재를 했다면 아니스 씨는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격하면서, 조코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이 파푸아를 방문했다고 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칭찬했다.

쁘라보워 후보도 아니스 후보를 향한 반격에 나섰다. 쁘라보워 후보는 아니스 후보가 자카르타 주지사로 재직 당시 관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막대한 주정부 예산을 어디에 썼느냐고 지적했다. 또 대기오염 문제를 바람 흐름의 탓으로 아니스 후보가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아니스 후보는 쁘라보워 후보에게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대화가 쉽지 않다"고 되받아쳤다.

지난 11월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한 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던 사람은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36세인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솔로 시장이 쁘라보워 후보의 러닝메이트 자격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헌재 결정 과정에서 기브란의 고모부인 안와르 우스만 헌재 소장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심리에 직접 관여해 문제가 됐다.

간자르 후보도 쁘라보워 후보의 약점을 공략했다. 간자르는 공산 쿠데타로 촉발된 1965년 9.30사태로 최소 50만명의 양민이 대량학살 사태 이후 람뿡 딸랑사리 사태 등 12차례의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 있었다면서 특별인권법정을 설치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와 관련, 프라보워 후보는 "인권과 관련해 반복되는 같은 질문이 계속되고 있다. 인권침해 사건을 고소한 유명한 인권 활동가가 자신의 대선 캠프에 합류해 일하고 있다"며 "나는 국가를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다"라며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혐의를 일축했다.
이번 TV토론회를 분석한 피르만 노오르 정치전문가는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촌평했다. 아니스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2019년 부패척결위원회(KPK) 관련 법개정을 지적하는 등 사법개혁에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다며, 전체적으로 토론회를 잘 진행했다"고 호평했다.
간자르 후보는 중부자바 지역의 실업 문제와 비료 보조금과 관련된 농부카드(Kartu Tani) 등 정책에 대해 적절하게 답변했다고 평가했다.
프라보워 후보에 대해, 대중의 주목을 끄는 데 중점을 둔 것처럼 보이나, 식자층의 표심을 끌어내지는 못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 [2024 대선] 쁘라보워 당선가능성 압도적 우위

### 쁘라보워 지지율 39.3%... 다른 후보와 20% 포인트 이상 차이 벌려

2024년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 후보 '당선가능성' 조사에서, 브라보워 수비안또 국방장관이 다른 후보와 20% 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리며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월 11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쁘라보워 후보와 러닝메이트인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는 39.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경쟁 후보인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는 16.7%, 간자르 쁘라노워는 15.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아니스 후보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간자르 후보를 추월했다. 아니스 후보는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다.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인디카토르 폴리틱(Indikator Politik)과 름바가 서베이 인도네시아(Lembaga Survei Indonesia)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쁘라보워 후보는 각각 45.8%와 45.6%의 지지율을 기록해, 다른 후보들을 20포인트 이상 앞섰다.
이번 결과는 공식적인 캠페인이 시작된 지 수주만에 나온 결과로, 대선토론회에 대한 반응이 반영되지 않았다. 첫 번째 대선 토론회는 12월 12일에 열렸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36)이 쁘라보워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후, 인도네시아에서 정치 왕조와 후원 정치가 심화되고 있다는 광범위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최신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비판조차 쁘라보워 후보의 인기를 훼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쁘라보워는 동티모르에서 인권침해와 1998년 학생운동가 13명을 납치한 혐의가 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는 2024년 2월 14일로 예정됐고,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6월에 2차 투표를 진행한다.

<경제 비즈니스>

## “인도네시아에서 9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니레버’”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명단에 오르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유니레버인도네시아(PT Unilever Indonesia)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1월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관 울라마협의회(MUI)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략을 지지하는 것은 하람(이슬람에서 금지된 것)이라며 이스라엘 제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관련된 제품 거래를 자제하라는 이슬람 율법의 칙령인 파트와(fatwa)가 공표되면서 유니레버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IDX)에서 유니레버인도네시아의 주가가 지난 11월 한때 크게 떨어지기도 했으며, 중역 4명이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글로벌기업 유니레버의 자회사로 네덜란드 강점기인 1933년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유니레버인도네시아(당시 사명 NV Lever’s Zeepfabrieken Indonesia)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매일 애용하는 각종 일용소비재(FMCG)를 만들어 인도네시아의 국민기업이라 불린다.

유니레버는 1929년 네덜란드 마가린 회사인 마가린유니와 영국의 비누 제조업체 레버브라더스가 합병해 세워진 회사이다. 두 기업은 경쟁 대신 식민지 국가로부터 원료를 저렴히 들일 목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합병을 단행했다.

땅그랑 BSD 시티에 본사가 있는 유니레버인도네시아는 찌까랑 자바베카와 수라바야 룽꿋 지역 등 9개 공장에서 4천여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제와 화장품 및 식음료 등 40여 종류의 소비재를 생산하고 있다.

유니레버인도네시아는 1933년에 현재 인도네시아공화국 영토인 네덜란드령 동인도에 설립돼 자카르타(당시 바타비아) 뚜바구스 앙께 지역에서 럭스(Lux)와 선라이트(Sunlight) 비누를, 2년 후에는 마가린 블루밴드(Blue Band)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어 1941년 수라바야에 콜리브리(Colibri)라는 브랜드로 화장품을 생산을 시작한다. 1942년 태평양전쟁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1947년에 재가동된다.

수카르노 집권기인 1964년 유니레버 인도네시아는 국유화되었다가 수하르토가 집권하면서 1967년 유니레버인도네시아가 경영권을 회복한다. 1980년부터 당시 사명 NV Lever’s Zeepfabrieken Indonesia를 유니레버인도네시아로 변경하고 1982년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 상장했다.

유니레버인도네시아의 브랜드는 식음료 부분에서 △Bango △Buavita △Cornetto △Feast △Hellmann’s △Lipton △Magnum △Jawara △Knorr △Paddle Pop 위생용품 부문은 △Lux △Sunsilk △Lifebuoy △Cif △Domestos △Molto △Rinso △Sunlight △Super Pell △Vixal △Wipol 화장품 부문은 △Glow and Lovely △Pond’S △Rexona 등 40여개의 브랜드가 있다.

## 2024년 자바섬 시/군 지역최저임금 발표

인도네시아 자바섬 내 시/군 지역최저임금이 지난 11월 30일 발표됐다.

인도네시아 인력부 자료에 따르면 자바섬에서 서부자바주 브까시(Bekasi) 시(市)의 월간 지역최저임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5,343,430루피아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워노기리(Wonogiri) 군(郡) 지역최적임금으로 2,047,500루피아이다.

자카르타특별주는 다른 주(州)와는 다르게 전 지역이 5,070,000루피아로 동일하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주단위 최저임금

(UMP)을 지난 11월 21일 발표했다. 2024년 자카르타특별주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3.3%를 인상해 Rp5,067,381로 인상했다. 2024년 주요 주정부 단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서부자바주: Rp 2,057,495 (3.57%) △중부자바주: Rp 2,036,947 (4.02%) △동부자바주: Rp 2,165,244 (6.13%) △족자카르타주: Rp 2,125,897 (7.27%) △반뜬주: Rp 2,727,812 (2.5%) △람뿡주: Rp 2,716,497 (3.16%).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있으나, 최저임금 산정 공식은 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에 따른 2021년 대통령에 따라 정해진다. 즉, 최저임금은 기존 최저임금에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에 △조정값을 반영해 결정한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정해진 값인 만큼 결국 정부가 결정하는 이 '조정값'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다. 정부는 산정 공식을 발표하며 조정값을 0.1~0.3으로 결정했다. *산정 공식: {물가상승 Inflasi + (경제성장 PE X $\alpha$)} X 조정값UM (t).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확정한 주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3% 수준으로 확정됐다.

다음은 자바섬 주요 지역의 최저임금

반뜬(Banten) 주

△SerangRegency:Rp4,560,894△TangerangRegency: Rp 4,601,988 △Tangerang City: Rp 4,760,289 △South Tangerang City: Rp 4,670,791 △Cilegon City: Rp 4,815,102 △Serang City: Rp 4,148,602

서부자바(West Java) 주

△Bekasi City: Rp 5,343,430 △Karawang Regency: Rp 5,257,834 △Bekasi Regency: Rp 5,219,263 △Purwakarta Regency: Rp 4,499,768 △Subang Regency: Rp 3,294,485 △Depok City: Rp 4,878,612 △Bogor City: Rp 4,813,988 △Bogor Regency: Rp 4,579,541 △Sukabumi Regency: Rp 3,384,491 Sukabumi City: Rp 2,834,399 △Bandung City: Rp 4,209,309 △Cimahi City: Rp 3,627,880 △West Bandung Regency: Rp 3,508,677 △Sumedang Regency: Rp 3,504,308 △Bandung Regency: Rp 3,527,967 △Cirebon City: Rp 2,533,038 △Cirebon Regency: Rp 2,517,730 △Majalengka Regency: Rp 2,257,871 △Garut Regency: Rp 2,186,437

중부자바(Central Java) 주

△Cilacap Regency: Rp 2,479,106 △Banyumas Regency: Rp 2,195,690 △Purbalingga Regency: Rp 2,195,571 △Wonosobo Regency: Rp 2,159,175 △Magelang Regency: Rp 2,316,890 △Boyolali Regency: Rp 2,250,327 △Jepara Regency: Rp 2,450,915 △Semarang Regency: Rp 2,582,287 △Brebes Regency: Rp 2,103,100 △Magelang City: Rp 2,142,000 △Surakarta City: Rp 2,269,070 △Salatiga City: Rp 2,378,951 △Semarang City: Rp 3,243,969

동부자바(East Java) 주

△Surabaya City: Rp 4,725,479 △Gresik Regency: Rp 4,642,031 △Sidoarjo Regency: Rp 4,638,582 △Pasuruan Regency: Rp 4,635,133 △Malang Regency: Rp 3,368,275 △Malang City: Rp 3,309,144 △Pasuruan City: Rp 3,138,838 △Probolinggo Regency: Rp 2,806,955

족자카르타(Yogyakarta) 특별주

△Yogyakarta City: Rp 2,92,997 △Sleman Regency: Rp 2,315,976 △Kulon Progo Regency: Rp 2,207,736 △Bantul Regency: Rp 2,216,463 △Gunungkidul Regency: Rp 2,188,042

데일리인도네시아

# 한·인니 역대 최대 경제협력의 장…
# “빅웨이브, 새로운 미래 열다”

##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경제포럼]

12시간 · 연사 58명 · 관중 1000명…양해각서 2건
외교 · 경제계 리더 한자리… “앞으로 50년을 함께”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수교 반세기를 기념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호텔 물리아에서 열린 ‘한 ·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협력 포럼’이 양국 정부 관계자 · 기업인 · 문화예술인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K-Wave & I-Wave, 내일을 위한 동행(Together for the Future K-Wave and I-Wave)’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포럼은 ㈜헤럴드(헤럴드경제 · 코리아헤럴드),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 주(駐)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행사는 외교 · 경제 · 문화 분야를 총망라해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각 분야의 공동 번영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한 뒤 마련된 자리로 주목을 받았다.

현장에는 인도네시아 기업 · 기관 관계자 300여 명, 한국 기업인 약 150명 등 총 1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에 걸쳐 58명 연사가 강단에 섰고, 2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각계에서는 총 12명이 공로상을 받았다. 해당 기록은 올해 열린 양국 수교 50주년 행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가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양국이 지난 50년간 쌓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의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자”며 “한류(K-Wave)와 인도네시아 문화 웨이브(I-Wave)가 만나 인류의 미래를 위한 큰 물결(Big Wave)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제언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지난해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규모가 여러 국가 중 7위를 차지했다”며 “전기차 생태계 등 양국 사이에 더 많은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전 세션에서는 신윤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와 엄강심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방문교수가 한 ·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간 외교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토론했다. 구보경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 연구교수와 고영경 고려대 아세안연구원 연구교수는 아세안 차원에서 한 · 인도네시아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경수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전 주독일대사 및 외교부 차관보)와 디노 빠띠잘랄 전 인도네시아 외교부 차관도 참석했다.

이상덕 대사는 축사에서 "우정은 두 몸에 살고 있는 단 하나의 영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을 인용하며 "양국도 향후 50년을 바라보며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직면할 과제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자"고 전했다.

경제와 산업을 주제로 한 오후 세션은 최진영 코리아헤럴드 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밤방 수사트요 인도네시아 상원의장,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부총리), 간디 술리스티얀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별 고문, 정원주 ㈜헤럴드 회장 겸 대우건설 회장(한국주택건설협회장), 신타 위자야 캄다니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회장, 유키 누그라하완 하나피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 직무대행, 물도코 인도네시아 대통령 비서실장, 파할라 누그라하 만수리 인도네시아 외교부 차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공로상 수상자 중 좌로부터 박재한 한인회장, 이주한 RS 그룹 대표, 정원주 코리아 헤럴드 미디어 그룹회장, 간디 술리스티얀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별 고문, 신태용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정원주 헤럴드 회장은 "양국은 더욱 다양한 협력을 모색할 준비가 됐다"며 "포럼을 계기로 양국의 우정과 협력을 널리, 그리고 깊게 알리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키 회장 직무대행은 "올해 한 ·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며 관세 장벽이 낮아지고,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친환경, 배터리, 대중문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양국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전기차 ▷인프라 ▷혁신 산업(금융 · 유통 · 철강) ▷이산화탄소 포집 · 저장(CCS) ▷창조경제 등 주제가 다뤄졌다. 마지막 세션 5 'K-wave와 I-wave: 2045년을 향한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창조산업 육성'에선 문화교류를 논의했다. 토론에는 인도네시아 국민 여배우 루나 마야, 케이팝 그룹 시크릿 넘버의 인도네시아인 멤버 디타 카랑,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K-팝 커뮤니티 'K Vibes'의 창업자 디카, 인도네시아 배우 겸 사업가인 라피 아마드 란스 엔터테인먼트(RANS Entertainment) 회장 등이 참여했다.

포럼 이후 열린 '한 · 인도네시아 친선 우호의 밤'은 올해 잇달아 열린 양국 수교 50주년 행사에 마침표를 찍는 성격으로 진행됐다. 먼저 간디 술리스티얀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별 고문,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이주한 RS그룹(로얄수마트라그룹) 대표, 신태용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디타 카랑 K-팝(POP) 그룹 '시크릿넘버' 멤버 등 12명이 공로상을 받았다. 이어진 축하 무대에는 한국에서 석 달간 K-팝 트레이닝을 받고 본국에 돌아온 인도네시아 걸그룹 '스타비'가 올랐다. 인도네시아 전통춤 누산따라 공연과 한국 무술 태권도 공연도 눈을 사로잡았다.

한편, 이번 포럼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면 행사와 온라인 생중계로 동시 진행됐다. 헤럴드포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제공: 헤럴드 경제)

# “<맨발의 사나이>는 아픈 지구, 얼음은 녹고 있는 빙하”

환경운동가인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씨가 12월 20일, 자바 팰리스 호텔(찌까랑 소재)에서 ‘맨발로 얼음 위에 서있기’ 세계 신기록 4시간 40분에 도전에 성공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가 주최한 이번 <맨발의 사나이> 신기록 도전은 꾸준한 지반침하로 해수면보다 고도가 낮은 상태인 자카르타의 현상황을 볼 때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조승환 도전자와 이곳에 모인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 하나 되어 4시간40분 동안 간절함과 긴장감으로 도전의 성공을 기원했다. 자카르타의 기후와 환경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표현해 준 맨발의 사나이에게 감동받았다”고 밝혔다.

장구 공연을 위해 참여한 찌까랑 한인회 김일순 간사는 “ ‘맨발의 사나이’ 의 고통이 전해져 뭉클했다. 저절로 응원을 하게 되어 자리를 뜰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조승환씨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온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싶다. 뉴욕 UN본부 앞에서의 7시간 도전 퍼포먼스를 목표로 체력단련에 집중하고 있다. 함께 응원하며 기록경신에 힘을 실어준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분들께 감사드린다 ” 라고 말했다.

(사)맨발의 사나이 빙하의 눈물 환경단체 양주열 대표는 “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씨의 4시간40분 기록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 경이로운 기록 경신이다”라고 말했다.

# ‘2023년 하반기 팀코리아 간담회’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대사 이상덕)은  대사관직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공공기관 및 기업인과 코참(KOCHAM), 한인중소기업협회, 포스코, SK E&S 대표 등 약 60명을 초청해  ‘2023년 하반기 팀코리아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2월 8일, 랭햄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이상덕 대사는  “인도네시아에서 기간산업에 우리만큼 투자가 이루어진 곳도 없다. 상응하는 처우을 위해 한국기업이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할 때다. 시스템을 전개하고 어떤 틀을 만들 것인지 상고해야 한다. 대사관, APINDO, KADIN 등을 활용한 정보공유 등을 적절한 시점에 투입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자”며, 한국과 인니 경제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여 양국 간 교역 증진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대사관은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성 공사참사관은 내년 2월 14일 인니대선의 동향을 설명하고, 양석화 참사관은 대리 메시지 조율, 의견 전달 등 공공 기관과 연결된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팀코리아 내 대사관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250개의 회원사가 있는 코참 이강현 회장은 “업체들의 중복된 애로사항과 요청 등으로 소모되는 힘을 하나로 모아 여러 채널을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자” 고 강조했다.

이후 2023년 하반기 팀코리아 전체회의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각 협의체와 공공기관 대표자 발언이 이어졌다.

여기가 맛집!

# BUSABA A THAI

황지영 (PT. Prime Freight Indonesia)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새해가 밝았네요. 신년은 언제나 선물과 같은 느낌입니다. 새로 받은 포장지를 뜯을 때처럼, 기쁨, 설렘, 기대를 한꺼번에 느낄 수 있지요. 떠오르는 새해 아침해를 보고 소원은 비셨을까요? 한국은 동네마다 산들이 있어서 1월 1일마다 산에 올라가서 오들오들 떨며 해돋이보고 따뜻한 어묵 국물 들이켰는데 자카르타는 그러기 어려우니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아쉬운 대로 해가 뜨는 방향을 미리 체크해서 집 앞에서라도 소원을 빌고는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소원 비셨나요? 올해 소망하시는 것들 모두 이루시고, 순탄한 2024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 드릴 식당은 BUSABA A THAI입니다. Pacific Place Mall에 위치한 태국 요리집인데요. G층에 몰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옆 구석에 식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식사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쪽 자리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식당에 들어가면, 고급 접시를 엮어 만들어진 샹들리에가 눈에 띕니다. 아주 독특하고 고급스러운데요. 그 옆에 태국 왕족으로 보이는 여인의 사진도 걸려있습니다. 그럼 요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요리는 Pad Thai (110,000 루피아 ++) 입니다. 태국식 쌀국수 볶음면인데요. “팟” 은 태국어로 “볶음” 이라는 뜻이고, “타이” 는 태국이라는 뜻인데. 해석하자면 태국식 볶음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동남아나 중국의 볶음면은 굴 소스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굴 소스를 사용하게 되면, 팟씨유 (굵고 넓은 쌀국수면을 간장에 볶은 면 요리)의 맛과 가깝겠습니다. 팟타이는 쌀국수를 스크램블한 달걀, 두부, 새우, 부추, 숙주나물 등의 재료와 함께 남쁠라 (태국식 피시소스), 타마린드 주스(강한 신맛을 내는 콩과의 식물 소스), 팜슈가를 더해 볶아냅니다. 이 타미린드 소스는 빠져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재료인데요. 다른 동남아의 볶음면들에 비해 팟타이는 신맛과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신맛을 강하게 내는 타미린드주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먹기 전에 땅콩 가루, 라임 즙, 고춧가루, 설탕 등을 뿌려 먹습니다. 제 태국 친구 말에 의하면, 태국 사람들은 고급 식당보다 길거리 노점에서 먹는 팟타이가 더 맛있다고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값싸고 소박한 서민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먹는 태국 음식은 고급 요리로 분류되어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지만요. 신맛, 단맛, 짠맛이 다 느껴지는 자극적인 팟타이는 저절로 맥주를 부르는 맛입니다. 맥주와 함께 곁들이시기에도 좋을 겁니다. 태국 요리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팟타이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요리는 Crab Omelette (100,000 루피아 ++)입니다. 촉촉한 계란을 열면 게살이 들어있는 게살 오믈렛입니다. 저는 서양식의 촉촉하고 퐁실한 계란을 기대했지만, 완전히 동남아식의 기름에 바싹 튀긴 계란요리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짐작할 수 있는 계란과 게살의 맛입니다. 저는 계란과 갑각류를 좋아하여 이 요리를 시켰지만, 계란과 갑각류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는 아는 맛입니다. 하지만 튀김류에 가까운 느낌이기 때문에 맥주안주로 금상첨화였습니다. 1차로 식사를 하고 오신 분들이라면, 2차로여기서 이 요리를 안주삼아 맥주와 함께 곁들이시기를 아주 추천 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요리는 Massaman curry (100,000 루피아 ++)입니다. 저는 사실 지인이 이 요리가 맛있다고 추천하셔서 이 요리가 이 식당을 간 목적이었는데요. 다들 태국의 풋팟퐁 커리, 그린커리같은 것들은 아시겠지만 마사만 커리는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고추, 샬롯, 마늘, 레몬그라스, 계피, 카다멈(생강과에 속하는 인도가 원산지이다. 주로 동양, 특히 인도에서는 쌀이나 전병, 국수에 넣어 향을 낸다), 클로브 (정향나무 꽃봉오리와 열매), 고량강(생강과의 뿌리줄기. 특이한 방향이 있으며 서양의 고추냉이와 라임 향이 나는것이 특징), 고수 등 다양한 향신료가 들어간 페이스트를 코코넛밀크와 함께 끓여 만든 태국식커리입니다. 매운맛, 짠맛, 신맛, 단맛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사만 커리의 기원은 불분명하나 16세기쯤 페르시아, 말레이, 아랍등의 무슬림 영향을 받아 탄생한 것으로 추청됩니다. 다른 태국식 커리와 달리 마른 향신료로 만드는 것이 특징이며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무슬림과 관련된 음식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큼직하게 깍뚝썰기 된 감자와 소고기가 들어가 있어서 쌀밥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화로에 고체연료를 불붙여 나오기 때문에 식지 않고 계속 따뜻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비주얼만 봐도 위에 토핑 되어있는 계피 스틱과 팔각정 때문에 향신료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커리향이 강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향신료향이 많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늘 먹던 커리말고 새로운 커리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감자가 넉넉히 많이 들어있어 포만감도 넉넉해, 든든한 한 끼로도 추천드립니다. 감자를 으깨 밥에 슥슥 비벼서 드셔보세요. 밥투정하는 어린이도 한 그릇 뚝딱할 만한 매력적인 요리입니다. 아이들과 같이 동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국 음식은 짠맛, 신맛, 단맛이 공존하는 요리라 저는 참 즐겨먹는데요. 자카르타에서 맛있는 태국 요리집을 찾은 것 같아 한동안 자주 찾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가족들과 태국 요리 어떠세요?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는 청룡의 힘찬 기운으로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청룡의 신비로운 힘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맛집 탐방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일 진부하지 않은 맛집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식당 정보 : <BUSABA A THAI>**

음식 종류 : 태국요리
가격대 : Rp 200,000-4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오전 11:00- 오후22:00
주소 : Pacific Place Mall,
Jl. Jenderal Sudirman No.52-53
Ground Floor, RT.5/RW.3, Senayan,
Jakarta Selatan 12190

※ Google 참고

# 그리운 안쫄 Ancol

김 준 규

인도양 거친 파도를 타고
열도가 그리워 멀리서 왔네!

해변의 팔랑이는 야자잎은
바람을 가르며 손짓하고
장승처럼 기다란 야자에게
두 손 모아 발원發願하였네!

남방의 보물섬은 어디 있을까?

풍선처럼 부풀던 나래짓
적도의 꿈을 꾸다
뜻 모를 설렘에 밤을 지새우고

머나먼 북동쪽
두고 온 김치의 나라
외로움에 눈물짓던 시간들
입술을 옥물며 끝내
'오랑 인도네시아'로 살으리라!

온몸에 엉기는 열대의 끈적한 열기
거리에서 마시던 맹맹한 야자물도
허름한 와룽의 깔깔한 커피도
추억 속 아련한 수채화

지금도 팔랑이는 야자잎은
바람을 가르며 손짓하고
인광*이 부서지는 안쫄 바다는
그리움에 출렁인다

* 인광(燐光): 강렬한 복사열로 인하여 안쫄바다에 밤이 되면 빛을 내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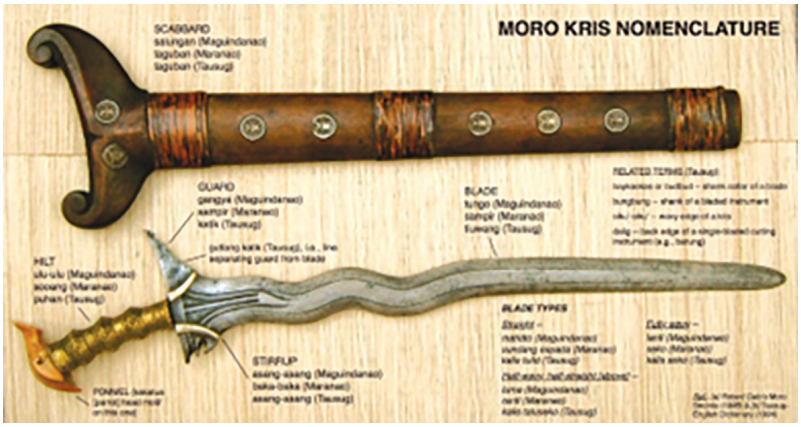
김 준 규(시인, 수필가)
충남 예산 출생. 1982년 인도네시아 정착. PT. Cipta Orion Metal, Executive Commissioner 회장
계간 <문장> 시 부문 신인상 수상, 수필과 비평 / 수필시대 신인상 수상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회장, 한국문인협회 해외발전위원
형상시문학회 고문, 2024년 한국문협 제1회 출판문학상 수상
<저서>
시집: 「보딩 패스」, 「낙엽의 귀향」 수필집: 「저 바람 속에 운명의 노래가」
Email: jinn.kim@outlook.com

#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댄덜스가 닦은 대우편도로(The Great Post Road) – 오늘날 '북부해안도로'(Jalan Pantura)라 불린다.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Great_Post_Road#/media/File:Java_Great_Post_Road.svg)

요구를 거절당한 댄덜스는 노발대발하는 하멍꾸부워노 2세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이번엔 네덜란드를 대표하던, 주지사 격인 지방총독의 지위를 '장관'으로 승격시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VOC 시절 지방총독이란 기본적으로 동인도회사의 일개 사업가였으므로 끄라톤 궁전의 신하로서 단 아래에서 술탄을 우러러보며 경의의 표시로 시리(Sirih) 나뭇잎을 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댄덜스는 '장관'이 네덜란드 국왕의 대리인이자 총독부가 지배하는 모든 자바 왕실의 대리인이므로 모든 면에서 술탄과 동등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족자의 술탄은 물론 자바의 모든 왕들은 이제부터 내가 정한 '장관을 대하는 규범'을 따라야만 할 것이오! 장관은 술탄과 똑같은 높이에서 같은 의자에 앉고 술탄이 쓰는 산(傘)과 똑같은 산을 쓰며 왕을 만나도 모자를 벗거나 시리 나뭇잎을 뿌리며 신하의 예를 취하지 않을 것이오."




끄리스 단검의 한 유형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Kalis#/media/File:Kris_nomenclature.jpg)

댄덜스가 단 위에 올라가 왕좌에 앉은 술탄을 한껏 내려다보며 언성을 높이자 하멍꾸부워노 2세가 벌떡 일어서 마주 노려보면서 궁전의 왕족들과 귀족들이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아직 더 있소! 앞으로 장관이 끄라톤 궁전에 입장할 때면 술탄은 반드시 왕좌에서 일어나 그를 공손히 맞아야 할 것이오! 길에서 왕의 행차와 마주쳐도 장관은 마차에서 내릴 필요없이 창문을 살짝 열고 지나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예를 갖춘 걸로 간주될 것이오!"
"그게 말이나 될 소리란 말이오?"

하멍꾸부워노 2세가 잡아먹을 듯 노려보며 언성을 높였지만 댄덜스 총독은 아랑곳없이 술탄에게 도전적으로 아래턱을 내밀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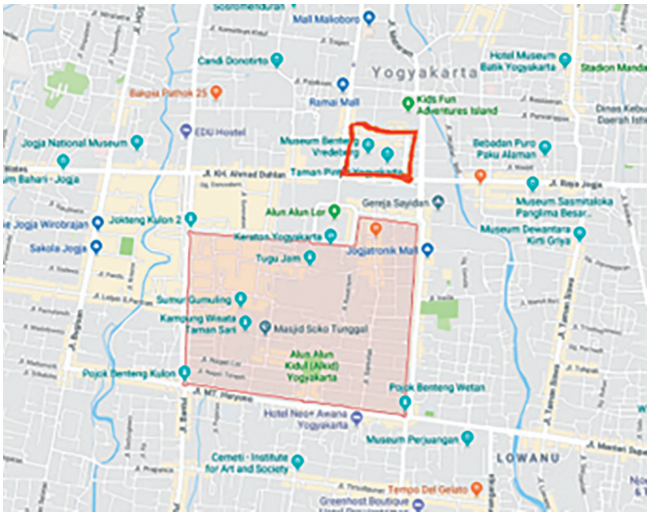
"그러니 총독부의 '장관'은 모든 면에서 술탄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될 것이오. 그리고…."

댄덜스는 단 위에서 극적으로 방향을 돌려 그 옆에 선 태자 라덴 마스 수로요와, 파직당한 다누레죠 2세 재상 대신 직무대행으로 세운 술탄의 동생 노토꾸수모(Pangeran Notokusumo), 노토디닝랏(Pangeran Notodiningrat), 두 왕자 앞을 거만한 표정으로 천천히 지나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 총독 헤르만 빌렘 댄덜스가 그 장관의 상관이란 걸 잊지 말시오! 난 그 위에 있단 말이오!"

댄덜스 총독의 그 오만불손한 말을 전해 듣던 무스타하르는 분한 마음에 두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자가 왜 그렇게 오만할 수 있었는지 왕자는 아느냐?"
"저들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맞았다. 끄라톤 궁의 코 앞에 세운 브레더부르크 요새(Benteng Vredeburg)가 끄라톤을 적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라 저들은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술탄국의 심장을 겨눈 가장 큰 위협이지. 저기서 포를 쏘면 끄라톤 궁전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아래의 큰 박스가 족자 끄라톤 궁, 위의 작은 박스가 브레더부르크 요새 (출처 – 구글맵)

라덴 마스 수로요는 한숨을 쉬었고 무스타하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하나 더 묻겠다. 나의 태자 지위를 네덜란드 총독부가 왜 승인했는지 아느냐?"

무스타하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내가 힘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야만 네덜란드가 꼭두각시처럼 부릴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 말에 무스타하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솔직한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라덴 마스 수로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아, 잘 듣거라. 네가 힘이 없다면 넌 누구도 도울 수 없어. 네게 힘이 없으면 네가 술탄이 되더라도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 힘을 키울 수만 있다면 그곳이 궁전이든, 뜨갈레죠든 상관없는 일이란다. 아무런 힘 없이 말로만 떠드는 용기란 저 브레더부르크 요새의 화포들이 한번 불을 뿜으면 아침녘 안개처럼 금방 사라지고 말, 부질없는 것이란다."

라덴 마스 수로요는 분노와 절망으로 흐느끼는 아들의 들썩이는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니 왕국에 도움이 되려면 먼저 힘을 기르거라. 궁전에 돌아오는 것은 그 다음 일이야. 난 네가 진정 힘있는 술탄이 되어 이민족들의 손에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구원하길 바란다."

라덴 마스 수로요는 이제 곧 궁전에 변란이 닥칠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스타하르가 안전한 곳에 가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네덜란드는 왕궁이 하는 모든 일을 참견하며 온갖 이권을 요구해 왔습니다. 왕실과 귀족들이 네덜란드에게 강력히 반발하던 중 응으벨(Ngebel)과 스끄독(Sekedok)에서 티크나무 숲을 빼앗으려는 네덜란드 총독부를 상대로 현지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자 네덜란드는 그 책임을 라덴 롱고 쁘라위로디르죠 3세(Raden Rongo Prawirodirjo III)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폭동 지역 관할인 마디운의 군수이면서 술탄의 사위이자 고문이었고 무스타하르 왕자의 장인이기도 했습니다. 주로 끄라톤궁에서 지냈던 인물이었는데 댄덜스 총독은 그에게 폭동을 사주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보고르(Bogor)로 소환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장인인 술탄을 압박하려는 수단이었고 그 소환에 응한다면 라덴 롱고는 십중팔구 누명을 쓰고 댄덜스의 손에 죽게 될 판이었습니다. 이에 라덴 롱고는 소환에 불복하고 차제에 마디운에 돌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는 자바땅에서 네덜란드인들의 묵은 떼를 씻어 낸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바인들과 화교들의 권익을 위해 네덜란드와 맞섰습니다.

"알라의 가호가 라덴 롱고와 마디운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기를!!"

라덴 롱고 토벌을 위해 족자 술탄국의 군대도 네덜란드에게 차출되었지만 하멍꾸부워노 2세는 공개적으로 이 반란을 축복하며 네달란드에 대한 반감을 숨기려 들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은 물론 백성들도 그러한 술탄의 언행에 통쾌함을 느꼈겠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정치적 자해행위가 되었습니다. 댄덜스가 매사에 비협조적인 하멍꾸부워노 2세를 어떻게 해서든 라덴 롱고의 반란과 엮어 폐위시키려 들었으니까요.

네덜란드가 중심이 된 수라카르타, 족자, 네덜란드 연합군이 마침내 반란을 진압했을 때 전사한 라덴 롱고의 시신에서 한 통의 서신이 발견됩니다. 거기엔 족자 술탄국 문장이 찍혀 있었는데 댄덜스는 술탄이 라덴 롱고와 공모한 증거라며 하멍꾸부워노 2세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측의 첨예한 갈등이 벌어졌지만 술탄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죠.

하지만 댄덜스는 이를 문제삼아 1810년 12월 기어이 군대를 동원해 끄라톤 궁전을 공격해 왔습니다. 압도적인 화력으로 끄라톤을 굴복시킨 댄덜스는 하멍꾸부워노 2세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그의 아들 라덴 마스 수로요를 술탄 하멍꾸부워노 3세로 즉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위상이란 말만 국왕이지 실제로는 왕의 권한대행 또는 큰 성의 태수 정도로 권한이 대폭 낮춰진 것이었습니다. 댄덜스는 찌레본(Cirebon)에서 노토꾸수모 왕자와 노토디닝랏 왕자도 체포하고 재상의 지위를 다누레죠 2세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천하의 속물 다누레죠 2세의 세상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실권없는 술탄을 한없이 깔보며 어떤 전횡을 저질렀을지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폐위된 하멍꾸부워노 2세는 끄라톤의 한 전각에 연금되어 다누레죠 2세에게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고 백성들은 그를 술탄 세뿌(Sultan Sepuh – 老술탄)라 부르며 마음아파 했습니다.

"아들아, 아직은 때가 아니니 뜨갈레죠를 떠나지 말거라."

네덜란드가 부왕을 끌어내린 자리에 올라야 했던, 그래서 결코 내키지 않았던 대관식이 끝난 후 하멍꾸부워노 3세는 무스타하르를 따로 불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끄라톤 궁전에는 얼마전 난입했던 네덜란드 군인들이 여전히 곳곳에 잔뜩 깔려있어 흉흉한 분위기였습니다.

"내가 전에 했던 말, 잊지 않았지?"
"네, 아버님."
"그래. 이 아비가 지금 하지 못하는 일을 넌 꼭 해낼 수 있어야 한다."

술탄 하멍꾸부워노 3세

韓方

서상영의 한방칼럼9

*지난 호에 이어*

# 면역이야기 2

### 천식

신xx (38세, 여, 주부)
최근 신경 쓰는 일 많았고 피로감 많이 느꼈다. 한 달 새 체중 5킬로 증가하였다.
어려서 천식을 앓고 성인이 되어서는 없어졌다가 최근 천식 재발
증상: 잦은 기침, 호흡곤란(밤으로 갈수록 심함), 숨 쉴 때 쌕쌕 소리 남, 오르막길 오르거나 빠른 동작을 하면 호흡곤란 심해짐.
막힌 공간이나 공기가 탁하면 증상 심해짐
치료: 병원약과 뿌리는 기관지 확장제 사용 1달, 큰 차도가 없어 한의원 내원
침+한약 치료
10년 전 출산 후 지금까지 불면증, 잘 붓고 감정기복 심한 편
경과: 10일 후 수면 질 개선, 저녁으로 기침, 호흡곤란 약간 호전반응
2주 후 몸에 붓기 빠지기 시작
1개월 후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없고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있다.
밤에만 약간 기침, 호흡곤란 증상 개선
2개월 후 가끔 무리하거나 피로할 때 빼고는 안정적임.

천식, 아토피 환자는 스트레스 상황(대중 앞에 발표, 좁고 막힌 공간에서 업무나 학업,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등)에서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적으로 답답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레르기질환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집중력 저하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성인들에게는 자존감 하락, 대인기피증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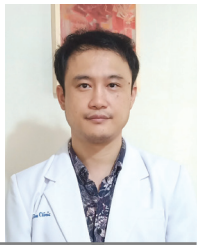
### 면역세포 강화법

1) 면역세포는 수면 중 활동합니다: 어두운 밤 수면 중에 활동성이 가장 왕성해서 숙면이 곧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의 대부분이 수면장애를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2) 적정 체온 유지: 암세포는 정상 온도인 36.5도 이하의 온도를 좋아합니다.
평소 체온이 조금 낮으신 분들이라면 기초체온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운동: 운동과 식단은 기초체온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고강도의 운동보다는 저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4) 식단
5) 스트레스 관리

### 자가면역 질환이란?

면역세포의 고유한 기능은 외부 요인(세균,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내 몸을 방어하는 역할이지만, 면역세포의 오류로 인해 자신의 조직이나 장기를 공격하여 발생한 질환을 일컫습니다.

미르한의원 주소: Wijaya Grand Centre
Blok C No. 37 Jakarta Selatan
(위자야센터 안 OK덴탈 옆 위치) 0856 9453 7974



글: 미르한의원 원장 서상영

영화에서 같은 동료였지만, 자신의 혈육이 인질로 잡혀있거나 혹은 정신을 지배당하는 등의 이유로 자신들의 동료들을 공격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면역세포가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 보호하고 지켜야 할 대상을 적으로 인식하여 공격하고 파괴하면, 염증이나 조직손상을 일으켜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손, 다리 관절을 공격하면 류마티스관절염이 되고 멜라닌세포를 공격하면 백반이 되고 척추 부위를 공격하면 강직성척추염이 되는 등 인체의 모든 장기와 조직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배 정도 발병률이 높습니다.

## 류마티스 관절염

홍xx (여, 62세)
류머티스 관절염을 앓은 지 18년, 손과 발 부위 약간 변형, 일상생활 어려움(식사할 때, 샤워, 옷 입을 때 도움 필요)

증상: 아침으로 손발이 붓는다. 활동하면 조금씩 풀리기 시작, 관절 변형으로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수시로 통증, 작년부터 허리, 어깨도 통증
치료: 신장(콩팥)은 양기와 음기를 주관하는데, 신장의 양기가 부족하므로 신장의 양기를 북돋우고, 간과 위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며, 뭉쳐진 기와 혈을 풀어 줌으로써 통증과 부기를 줄이고 변형이 진행되지 않도록 침, 한약, 병원약 병행

경과: 2주일 후 수면 개선, 붓기 조금 줄어든 느낌. 통증은 여전
2개월 후: 통증 50퍼센트 정도 줄어 듦, 활동은 여전히 불편
3개월 후: 붓기 통증 많이 호전되었다. 굳은 관절을 풀기 위해 수시로 스트레칭+찜질+마사지 병행
8개월 후: 붓기, 통증 80퍼센트 정도 좋아진 것 같다. 관절이 많이 부드러워졌다.
지속적 치료와 재활치료 병행하실 것을 권유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성분들이 많은데, 환자분들 대부분이 화병이나 우울증을 함께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병이나 우울증은 단순히 정신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육체적 문제도 야기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초기에 치료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 류마티스 관절염 | 퇴행성 관절염 |
|---|---|
| 몸의 면역체계 이상으로 자신의 관절을 공격하여 염증 발생이 원인 | 노화에 따른 연골 손상이 원인 |
| 관절이 굳으면서 아침에는 붓고 뻣뻣하고 통증이 심함 | 통증 위주의 증상이며, 저녁으로 통증이 더 심함 |
| 30세 이상 연령층에 두드러지게 나타남<br>손과 발쪽 작은 관절에 잘 나타남 | 60세 이후에 나타나는 경향이 두드러짐 |
| 관절을 가볍게 움직여주고 스트레칭 해주면 통증이 줄어듦 | 무릎 등의 큰 관절에 특히 잘 나타남<br>관절을 사용하면 통증이 심해지고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줄어듦 |
| 보통 양쪽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이 일어남 | 보통 한쪽으로 진행되고 시간이 지나도 변형이 일어나지 않음 |

# 韓方

## 루푸스

루푸스를 처음 접한 건 중국 유학 시절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의 얼굴이 나비처럼 붉은 모양을 띠고 있었는데,
대부분 20~30대의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인니에서 만나게 된 루푸스 환자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그녀는(20대) 앞으로 운동도 못하고, 임신도 못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다행히 젊은이의 활기참과 명랑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병을 대하는 태도도 절망적이기보다는 담담했습니다. 병원 약을 잘 챙겨 복용하고 규칙적인 식습관과 운동을 위해 노력했고, 일과 휴식의 균형을 생각했습니다.
여느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군것질 좋아하고, 영화 보고, 커피숍에서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친구였지만, 루푸스라는 병 때문에 맘껏 즐기지는 못했습니다. 처음 허리통증으로 인연이 되어 침 치료를 시작했는데, 허리치료가 끝날 무렵 어머님께 한방으로 루푸스를 치료해보자고 제안 드렸고, 흔쾌히 수락하셔서 서로가 합심하여 루푸스의 한방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치료를 반복할수록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얼굴 붉어짐 현상이 점차 줄어들었고, 무릎 관절통증과 소화 문제, 생리통 등 증상이 호전반응을 보여, 치료가 순조롭게 된 경우입니다.
3개월간 꾸준히 침과 한약 치료를 받았고 3개월 후 hs-CRP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고 병원 약도 줄여가며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갔습니다.
모든 환자가 이같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체질, 성격, 환경, 마음가짐, 신체조건 등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환자의 마음가짐이 긍정적일 때 효과도 빨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 암세포

텔레비전 토론으로 암세포와 면역세포의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세포 왕국의 국왕과 면역세포 왕국의 국왕은 오랜 앙숙으로 누가 더 강한지 전 세계 면역세포와 암세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티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사회자: 두 국왕께서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암세포: 우리 암세포는 신체에 존재하는 병원균 중에서 가장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 세포로 우리의 목적은 모든 정상세포를 암세포화하여 암세포 천국을 만드는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인체에 기생하여 영양분을 빼앗아 다른 정상세포를 암세포화하여 세력을 확장하는 것인데, 저 면역세포들이 계속 훼방을 놓아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면역세포: 우리는 신체를 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함으로써, 암세포뿐 아니라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 등 인체를 위협하는 모든 물질을 제거 및 섬멸함으로써 인체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암세포는 정상 세포들을 암세포화하여 인체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고 있기에 우리 면역세포는 이를 절대 묵인할 수 없으므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그럼 두 세포 국왕님들은 자신들의 존재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암세포: 우리 암세포들은 온도가 낮고 칙칙하고 습하며 피가 끈적하고 죽은 세포들이 많은 곳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우리를 응원하듯이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좋아하고, 또한 수면은 불규칙하여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영양보다 편의와 맛을 중요시하는 식습관과 운동을 게을리하고, 스트레스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습관이 우리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그곳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며 우리의 숙명인 번식을 통해 다른 정상 세포들을 암세포로 만드는 것뿐입니다. 우리도 살기 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뿐이죠.

면역세포: 면역세포들이 좋아하는 환경은 암세포들과 정반대입니다. 36.5도의 온도를 좋아하고 밝고 건조하지도 습하지도 않은 환경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현대인들이 불규칙하고 나쁜 생활 습관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는 인체를 방어해야 하는 숙명을 타고났기에 죽을 때까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저녁에 활동합니다. 즉 깜깜한 밤에 숙면을 취하고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적들을 소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도한 술, 담배, 화학물질 섭취는 자재해 주세요. 암세포들이 활개칠 수 없도록 죽을 때까지 방어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자: 두 국왕님의 열띤 토의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서로를 향해 한마디씩 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면역세포: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암은 정복될 것이고 암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립자 치료, 유전자 편집 기술, 신약 개발 등 우리 면역세포를 도와 암세포를 극복할 여러 치료 수단들이 개발 중이고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암세포가 전이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암세포: 면역세포 국왕은 우리 암세포들을 못 잡아 안달이지만, 우리는 엄연히 종족 번식과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일 뿐입니다. 남의 몸에서 기생하며 살아가는 처지이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한 우리는 지속적으로 번식해 나갈 것입니다. 인류가 발암물질을 만들어내고 그걸 흡수하고 몸을 병들게 만드는 이상, 우리는 언제든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이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암세포: 당부에 말씀을 드리자면
1. 저희는 과로와 과음 과식을 좋아합니다.
2. 규칙적인 식사, 운동, 수면은 되도록 삼가해 주세요. 특히 숙면은 저희가 아주 싫어합니다. 저녁에 잠을 안자면 어떻습니까.
3.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줄담배 부탁드립니다.
4. 아프고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당장 검사받지 마시고 병은 키우는 게 좋습니다. 못 참겠으면 병원에 가시길 바랍니다.
5. 컨디션 관리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되는대로 사는 거죠. 건강관리보다 돈 벌고 승진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게 우선인 거 아시죠^^

면역세포: 암세포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암세포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죽을 각오로 인체의 생명 유지를 위해 방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면역세포가 감당하기 힘든 공격을 받게 된다면 저희의 방어선도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스스로 몸을 혹사시켜서는 안됩니다.

사회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면역세포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면역세포가 활발히 활동해야 하고, 또한 면역세포가 스마트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적을 정확히 식별하여 공격 및 제거하고, 확실히 제압하여 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일 내 더 발전된 암 치료제 개발과 신기술 개발로, 암을 정복하는 미래를 기대하며 글을 마칩니다.

# 시작의 여정(旅程)

한화경(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

까칠하게 변해버린 막내를 데리고 입시를 보러 한국에 갔던 지난여름. 마지막 시험장에서 오랜만에 볼 미소 짓고 나와 밖에서 기다린 나에게 다가와 "엄마 그동안 나의 모든 짜증을 받아줘서 고마워요" 라는 인사를 받았다. 파란 하늘 아래 큰일 끝낸 모녀가 손잡고 캠퍼스를 뒤로 걸어간 모습이 한 컷의 추억으로 가슴에 저장되어있다. 힘들었던 과정들도 이제 과거가 되어간다. 지금 내가 소속된 오케스트라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 연습 시작한 지가 몇 주 되었다. 어느새 캐럴이 어울리는 연말이다.

긴 역사를 통해 사랑받아 온 캐럴은 많은 작곡가의 손을 거쳐 가장 좋은 선율로 만들어 전해온 음악 걸작이라고 배웠다. 적어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 베이스 이 5단계가 각각 파트 별로 다른 선율들이 모여 마치 톱니바퀴가 돌듯 리듬 맞게 맞물리면 아름다운 곡으로 들리도록 작곡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니 들으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캐럴이지만 연주하기에는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스트레스 캐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습이 답이다. 내가 못 해도 나만 잘해도 안 되고, 전체 속에 내 역할을 알아야 하고 내 소리도, 다른 파트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하며, 리듬 또한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마치 사회 축소판과 같이만 함께 소리 맞추는 오케스트라에서도 이 공식은 공통이다.

늦게 남아 음악의 신비에 감탄하면서 크리스마스까지 캐럴을 해내고자 연습에 임하고 있다. 어떤 조직도, 가정에도 심지어 개인의 마음에도 다양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다. 작은 부분이라도 고장이 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기계는 잘 보여준다. 나는 전체 속에 어떠한 부분의 톱니바퀴를 돌리고 있는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이 필요하다.

2개 나라를 걸쳤던 8년 정도 되는 우리 가족 해외 생활에 이제 꼭 변화가 올 것 같다. 가는 곳마다 적응해야 했고 2년 주기로 3번 돌아왔던 아이 입시에 보조 맞추어왔던 삶이 이제 눈앞에 다가올 막내 고등학교 졸업식으로 일단락이 된다. 30여 년 전,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를 문득 생각해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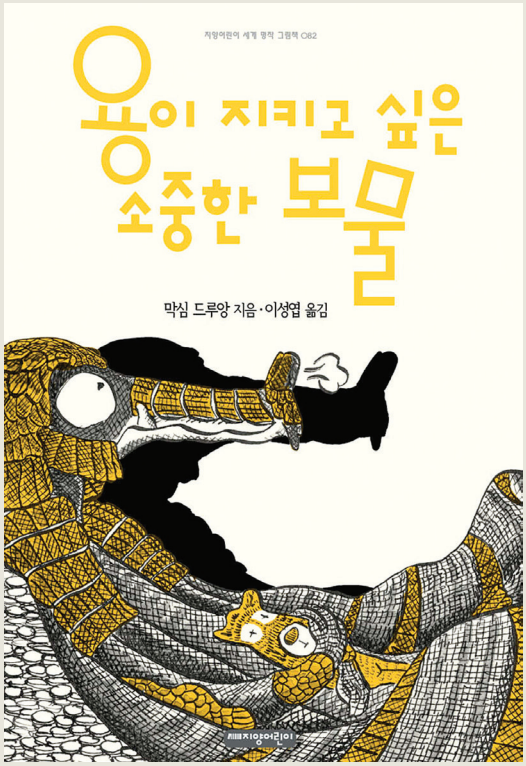
엄격했던 학교 규칙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렸다는 듯 미용실에 달려가 처음 파마를 했다. 생머리 아닌 웨이브 머리를 만지면서 새로운 세상에 가슴 벅찼고 거울 보기 바빴던 어린 나의 모습. 우리 막내도 마음가짐은 그 당시 나와 비슷할 것이다. 엄마가 되어 맞이할 막네 졸업식은 새로운 변화의 적응과 책임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분기점에 왔음을 알려준 나에게 제2의 인생 졸업식이 될 것 같다.

지금은 좋은 경험담으로 남아있지만, 적도의 나라에 와서 처음 맞이했던 겨울, 몸은 겨울인데 환경은 한여름인 연말에 몸과 마음이 제어가 안 돼서 제대로 향수병에 걸렸다. 그때는 평소 나의 긍정파워가 통하지 않았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전원이 꺼진 기계가 다시 천천히 돌아가듯, 바닷물에 빠지다 바닥에 다리가 닿아서 간신히 발을 딛고 물 위로 올라오듯 서서히 회복했다. 적응이라는 면역을 키우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만년 여름인 인도네시아에서 지내 온 세월만큼 정이 들었고 이곳에 날씨만큼 눈부시고 소중한 사람 관계가 펼쳐졌다.

막내를 보내면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릴 것이고 이렇게나 정든 생활을 정리하려면 그것 또한 정의 무게만큼 마음이 힘들 것이다. 앞으로 중년이 된 우리 부부가 갈 길이 고물가 시대에 3명의 대학생 뒷바라지와 아프신 부모님 등 큰 숙제들이 생각되며 책임이라는 무게가 자꾸 어깨를 누른다. 걱정이 앞서가지만, 통과 해야 할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니 긍정의 힘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마음이 기쁘고 가벼울 때 시간보다 마음이 먼저 앞서가고 시간이 느리게 느껴지지만, 마음이 무거울 때는 시간은 잘 가는 데 반해 마음의 속도가 실시간에 따라가지 못한다. 지금 내가 그런 것 같다. 이 나라에 정이든 대가로 겨울의 한국에 가면 여름이 그리워서 한 차례 향수병을 크게 겪을 것 같다.

오묘하게 만들어진 다양한 선율이 하나 되어 최고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캐럴을 도전하면서 달리듯 바쁘게 지나갈 연말에 마법에 금가루 뿌려 예쁘게 장식해서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다. 그리고 졸업식 마치면 비행기에 꿈을 가득 싣고 한국으로 향할 막내의 새로운 출발을 엄마의 밝은 미소로 보내주고 싶다. 얼굴은 웃고 있어도 마음에는 한차례 큰 태풍이 덮칠 것이다. 자연 태풍도 온다면 막을 수 없는데 전면으로 맞이해야 하는 사랑통도, 그간 쏟은 정의 무게만큼의 아픔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모두 겪어볼 것이다. 제대로 아프다가도 시간의 경과와 함께 마음을 천천히 정리해 나갈 것이다. 졸업식 전후로 이별이라는 대형 태풍이 마음 전체 강타하고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차차 찾아오는 봄 날씨에 따라 내 마음 날씨는 맑음이겠지. 나의 톱니바퀴 완전히 멈춰 버리지만 않게 바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 일기예보에 귀 기울인다.

# 내가 지키고 싶은 소중한 보물




『용이 지키고 싶은 소중한 보물』
막심 드루앙 지음, 이성엽 옮김,
지양어린이, 2023
Un Trésor Lourd à Porter (2021)

"엄마, 용은 원래 저기 살아? 공주는 코~ 자는데, 용은 친구도 없이 심심하지 않아?"
아이가 어릴 때 같이 슈렉<Shrek 2001>을 보다가 용이 나오는 장면을 보고 한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했다.
"그래, 그러네… 진짜 용은 저 재미없고 심심한 성에서 혼자 있기 싫었겠다."
그 영화에 나오는 거대하고 위협적인 용은 동키가 건네는 칭찬 한마디에 눈 녹듯 사르르 녹았다. 어쩌면 아이의 말 대로 그는 지독히도 외롭고 친구가 그리웠을지도 모를 일이다. 세상의 고정된 프레임으로만 보면 이상할 게 하나도 없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시선으로 볼 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용이 지키고 싶은 소중한 보물』 또한 아이 같은 새로운 시선에서 시작하고 있다.

철학을 전공한 작가 막심 드루앙의 글은 매우 시적이면서도 철학적이다. 삶과 존재에 대한 주제를 판타지 세계 속에서 드래곤 신화를 차용하여 풀어냈다. 반면 그림은 검정색과 황금색만을 이용한 단순하고 익살스러운 펜화로 다소 무거울 수 있는 글을 가볍게 중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 책의 분량은 80쪽으로 그림책으로 보기엔 글 밥이 조금 많은 편이다. 그러나 글과 그림이 상호 보완하며 작품 전체의 주제를 잘 전달하고 있다. 글 내용이 클라이맥스로 향하면서 그림 또한 절정으로 달려간다. 그림의 크기가 반페이지 -> 한페이지 -> 양쪽 페이지를 다 차지하며 시각적 서사도 역동적으로 표현된다. 글과 그림이 결말을 향해 함께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 "너의 보물을 지켜라!",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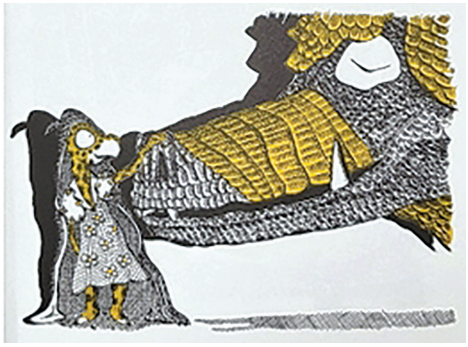
이 작품은 '오랜 시간 누구도 만나지 못한 채 보물만을 지키는 용의 삶이 행복할까?' 라는 다소 엉뚱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 황금이나 보물 따위에 관심이 없는 주인공 용은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 - "너의 보물을 지켜라!"- 을 이해할 수 없다. 보물을 빼앗으러 밤낮없이 찾아오는 예의 없는 마법사, 요정, 기사들을 물리치는 일도 넌덜머리가 난다. 원치 않는 삶을 살던 용은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어느 날, 자신처럼 황금에 관심이 없는 작은 소녀가 찾아와 서로 친구의 정을 나누며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되찾는다. 그러나 소녀 마르고의 정체가 무엇이든 만지면 황금이 되는 힘을 가진 공주임이 밝혀지며 용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다.

(무료하게 황금을 지키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황금은 황금색이 아니다.)

전설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만큼 독자들이 책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옛이야기와 신화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다. 용이 외로움에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동굴로 오는 길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보석을 뿌려 두는 장면은 샤를 페로의 거인을 물리친 <엄지 동자>, 용과 친구가 되는 마르고 공주의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 <미다스의 손>, 샤를 페로의 <잠자는 숲 속의 미녀>, 그림 형제의 <백설공주>와 <라푼젤>이 떠오른다. 유명한 용사냥꾼 지그프리드는 게르만 영웅 서사시<니벨룽의 노래>에서 사악한 드래곤 파프니르를 무찌르는 영웅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데, 이는 마치 우리가 살아가며 맺는 인간관계와 비슷하다. 작품 속에서도 다양하고 가지각색의 인물들이 결국 각자의 시선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보물을 찾아 나서는 과정을 그린다.

<그리스 신화 속 미다스>

<게르만 신화 속 영웅 지그프리드와 사악한 용 파프니르>



(용은 결국 황금의 굴레에서 벗어 날 수 있을지…)

**"마침내 친구가 생겼고, 나는 행복했다."**

공주나 기사의 입장에서 보면 용은 물리쳐야 할 나쁜 존재이지만, 용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피해야할 무서운 대상일 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그런 일방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나에게 맞는, 내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한다. 그 힘은 다름아닌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진실된 인간관계에서 싹이 튼다. 선입견을 버리고 상대를 바라보면서 비로소 '나'도 보게 된다.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두 존재, 용과 공주가 만나 우정을 쌓고 행복을 알아간다. 삶의 의미는 결국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나도 결국 보물의 노예가 아니었을까?”**

미다스의 손을 가진 마르고 공주는 탐욕스러운 계모 때문에 탑에 갇혀 황금을 만들도록 강요받았지만 결국 그 손아귀에서 탈출했다. 그러나 용은 보물에 관심이 없으면서도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을 버리지 못하고 오랜 기간 그것을 지키며 살았다.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는 본인의 상태를 제대로 마주할 수 없었지만, 마르고와 관계 속에서 그녀를 보고 자신의 문제점을 직면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를 알아차리면 그 뒤 해결로 가는 길은 보다 쉽다. 이제 용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마르고가 갇혀 있던 성과 용이 떠나지 못한 산이 비슷해 보인다.)

금은보화를 지켜야 한다는 속박에서 벗어나, 마르고와 함께 하늘을 날아 떠나는 용의 모습을 작가는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그렸다. 황금과 보석은 세속의 눈에는 가장 값어치 있는 보물일지 몰라도 용과 마르고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기에. 둘은 서로의 보물을 찾았다. 이제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 비상하고 있다.

“나의 산은 무너졌지만, 마음은 평화로웠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짓눌렀던, 보물을 지키는 의무에서 나는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제 내가 지켜야할 소중한 보물은 따로 있었다.
마침내 나는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로이 시작하는 2024년 푸른 용의 해, 스스로를 옭아매는 덫을 버리고 자신만의 보물이 무엇인지 찾아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본다.

# 제 104회 전국체전 해단식 및 회장 이취임식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로 미국, 일본에 이어서 재외동포부분종합 3위로 선전한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선수단이 해단식을 가졌다.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회장 이종현)는 지난 12월 19일, 자카르타 리츠칼튼 호텔에서 주인니 대한민국 이상덕 대사, 박재한 한인회장, 한인사회 각계 인사와 체육회 관계자 및 한인동포 320명이 모인 가운데 104회 전국체전 해단식과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재인니 대한체육회 선수단(단장 조현보)은 이번 목포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에 축구, 볼링, 태권도, 테니스, 스쿼시, 골프, 탁구, 검도 등 8종목에 115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2011년 6월 창립대회 이후 연속 선수를 파견한 인도네시아 선수단은 좁은 선수층에 비해 탁월한 기량으로 매회 좋은 성적을 거둬 인도네시아 동포사회에 자부심을 안겨줬다.

이종현 회장은 "재외동포 18개국 참가국 가운데 3위의 위상을 만들어 주신 선수. 체육회 임원 또 응원해주신 한인동포와 기업인분들께 진심을 다해 감사드리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메달을 획득하신 모든 선수들께 큰 박수를 보낸다" 고 말했다.

이상덕 대사는 "한인사회의 위상을 또 한번 높여줘서 고맙다. 한인동포 규모에 비해 16개 메달은 대단한 성과다. 인도네시아 동포사회의 단결을 보여줬다" 고 말했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체전 기간 동안 선수단과 함께 지냈다. 체육회를 잘 이끈 이종현회장님의 리더십으로 화합이 빛날 수 있었다. 새로 취임한 방진학 회장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볼링 금메달을 차지한 조환국 선수에게 최우수 선수상을, 안연진 볼링연맹 회장에게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여했다.

이 행사는 5대의 출발을 알리는 신임 방진학 회장의 취임식과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로 이어져 축제를 방불케 했다.

2023.10.13. 104회 목포 전국체전 인도네시아 선수단 단체 촬영

10월 19일 종료된 인도네시아 선수단 메달 집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금메달 4개
-볼링 남자 개인전(조환국)
-볼링 남자 2인조(조환국, 조현학)
-불링 남자 3인조(조환국, 조현학, 이동현)
-볼링 남자 5인조(남일성, 이동현, 이상호, 이창수, 조현학, 조환국)

* 은메달 4개
-스쿼시 남자 단식(이태준, 종합 3위)
-테니스 남자 복식(박종철, 백종흠)
-태권도 여자-67kg 김한나
-태권도 여자+67kg 곽세진

* 동메달 8개
-볼링 남자 2인조(남일성, 이동현)
-볼링 여자 5인조(고순옥, 김영희, 성윤경, 이선영, 임현주, 전인옥)
-축구 (와휴딘, 권민혁, 권혜성, 김동찬, 김복래, 김진성, 김태우, 박민종, 신현준, 염인욱, 이재웅, 이형진, 조영민, 주백현, 김성우, 최영철, 최윤석)

2023.10.19. 전국체전 시상식

-태권도 남자-68kg 이상혁
-태권도 여자-48kg 안예원
-태권도 여자-57kg 노현경
-골프 개인, 단체전-임수경, 손영순

# 한국인과 재인도네시아 한국인, 한국계 인도네시아인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을 어떻게 불러야 하나?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민족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한국인, 한인, 재인도네시아 한국인, 한국계 인도네시아인? 다른 표현으로 재외동포와 교민? 해외에서 치르는 선거는 재외선거이고 이때 유권자의 명칭은 국외부재자이다. 이렇게 부르는 말에는 국적 차이처럼 개인이 처한 환경만이 아니라 개인을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시각도 반영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계 혈통을 가진 사람은 한인이라고 부르고, 이 중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재인도네시아 한국인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한국계 인도네시아인이라고 부른다. 한편으로 해외에 사는 한국인을 교민 또는 재외동포라고 부르지만 해외에서는 스스로를 현지인과 구별해서 한국인이라고 부른다.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에는 “재외동포”를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재외동포기본법은 2023년 5월 9일에 제정되어 2023년 11월 10일에 시행된 법률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 한국인 만들기

함재봉 전 연세대학교 교수(현 한국학술연구원 원장)는 저서 『한국사람 만들기』 제1권에서 “‘한국사람’이란 역사 60여년에 불과한 미완성의 인간”이라며 “한국이라는 국가 역시 고전이 하나도 없는 나라다. 한글이 사용된 지도 70년이 안 됐다. 새 나라에 새 말인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처럼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민족이 없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적대적인 개념이 아닌, 상호 이해하는 방식이다. 다른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극복하는 방향이다. 진정한 ‘한국사람 만들기’는 이제 시작이다.” 함재봉 교수가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스스로 정체성을 고민하고 성장해 한국의정치 · 역사를 연구하며 깨달은 사실이다.

함 교수는 “우리는 이미 단일민족의 신화를 넘어 다민족사회”라고 정의하고, ‘한국사람’이란 공동체의 정체성을 한두 가지의 변치 않는 본질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민족의 정체성은 각 시대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함 교수에 따르면 ‘한국사람’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곳은 1962년 9월 22일 조선일보이다. 이전엔 ‘조선사람’이란 단어가 존재했지, 한국사람은 없었다. 대한제국 시절에도 대한제국인이었다. ‘한국사람’이란 말이 생긴 지 약 60년이 됐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사람만큼 세계에서 서로 다른 민족이 없다”고 덧붙였다. 언어, 풍습, 이념, 종교, 인종 등 어느 하나도 공통점이 없다며 한국사람의 본질이 아닌 ‘왜 이렇게 다양한지’를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은 고민했다. 국권 회복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상하이, 하와이, 도쿄 등 세계 곳곳에 퍼져있던 이유이다. 사람들은 기독교, 공산주의 등 국가의 다양성을 경험했다. 그게 우리의 20세기 초반 역사이다”라며 “하지만 해방 이후, 이들은 결국 ‘어떤 한국인이 될 것인가’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현재 남북으로 갈라서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이다”라고 말한다.

함 교수는 한국사람을 다섯 종류로 정리했다. ▲친중위정척사파 ▲친일개화파 ▲친미기독교파 ▲친소공산주의파 ▲인종주의파이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는 한 사람당 하나가 아닌, 한 사람 안에 다섯 가지가 섞여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정리되지 않고 서로 다르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교수는 “지금 한국은 인프라, 경제력 모든 걸 갖추고 있지만 문화적 · 사상적 측면에서의 한국사람은 없다. 놀라울 정도로 서로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다양함이 특색이 될 수 있다. 다양성을 이용해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 독창적 문명이다. 아직까지 완전해지지 않았고,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한국사람 만들기’ 이다.”라고 말했다.

함 교수는 한국사람을 부르는 공통된 호칭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북한사람, 중국동포, 조선족, 고려인, 재일교포, 민단, 조총련, 재미교포 등. 이들을 모두 포용하려면 한국사람은 영토를 넘어서야 하는 개념인 동시에 한국에 이주해 사는 외국인들을 포용하려면 혈연도 넘어서야 한다.

같은 영토도 아니고 같은 혈통도 아니라면 한국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 한국어?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이 2세대만 지나도 한국어가 쉽지 않고 3세대부터는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흔하다. 국내에 이주한 외국인들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는 중국은 진나라 때부터 ‘한족’ 만들기 시작했고, 한국은 ‘통일신라’가 신라인 만들기를 시작한 후 고려인, 조선인, 한국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한국사람 만들기’가 한국인이라는 카테고리를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역설한다. 그는 모든 사람이 소속감을 느끼고 연대할 수 있는 수단이어야지 차별과 배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베네딕트 앤더슨『상상된 공동체』

정치학자 겸 역사학자 베네딕트 앤더슨은 저서 『상상된 공동체』에서 ‘민족은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공동체일 뿐”이라고 썼다. “많은 국가들이 민족의 이름으로 삶을 영위하면서도 민족, 민족성, 민족주의 같은 말은 정의조차 힘들다”고 말한다.

앤더슨은 민족이 근대에 와서 생긴 개념으로, “역사적 숙명으로, 그리고 언어를 통해 상상된 공동체인 민족은 열려 있으면서 동시에 닫혀 있다”고 정의했다.

그는 왕권이 약화되고 종교공동체가 붕괴되던 시기에 인쇄술이 발달하자 서로 교류한 적이 없던 이들이 신문과 책 같은 인쇄물을 통해 서로 같은 언어권임을 확인하면서 이 언어집단을 하나의 민족으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족은 때로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고취하며, 잘 문명화된 민족주의는 삶을 안정되게 만든다”라며 하지만 동시에 “강한 수평적 형제애나 사랑의 감정은 공동체 내부로만 향할 뿐, 외부의 사람들을 배제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고 경계심을 높였다.

엔더슨은 민족주의는 경계의 안과 바깥을 구별하는 과정에서 국수주의나 인종주의로 빠지기 쉽다고 경고했다.

### 맺는 말

함재봉 교수는 ‘한국사람 또는 한국인’이 공통점이 없는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말한다. 앤더슨은 ‘민족’이 상상된 공동체라고 말한다. 결국 한국인 또는 한민족이라는 상상된 공동체는 모두를 아우르는 다양성과 포용력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개념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르는 명칭도 우리 스스로의 특징도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고민이 타인을 배제하고 구별하는 행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끝]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2023년 4분기 정기회의 및 송년회 개최

##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의 대내외 정책추진 방향’ 의 주제로 한반도 통일 위한 열띤 토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부협의회 이세호 협의회장 및 싱가포르 지회, 말레이시아 지회, 발리분회, 동티모르 분회, 브루나이 분회, 코타키나바루 분회 자문위원과 이상덕 인도네시아 대사 등 총 53명(대면 18명, 온라인 35명)이 참석한 회의는 ▲국민의례 ▲개회사(이세호 회장) ▲축사(이상덕 대사) ▲사업 보고 및 계획 ▲특별 강연 및 토의(심상호 자문위원, 박지민 자문위원, 최태립 부회장) ▲사진 촬영 ▲주제 토론과 발표 ▲폐회 순서로 진행됐다.

이세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남아에서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북한 인권 실상을 강연을 통해 더 알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강조하며 행사를 시작했다. 이어서 동남아에서도 활발하게 통일에 대한 논의와 노력이 지속되도록 자문위원들의 노력과 관심을 부탁했다.

이세호 회장은 “제21기 민주평통이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민주평통 사업에 항상 많은 관심과 참여로 애쓰시는 자문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2024년 있을 민주평통 사업에 대해 많은 참여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이어 평통 사무처가 제작한 북한 인권에 대한 영상을 시청한 뒤

1)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 – 싱가폴 지부 심상호 자문위원

2)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알권레 제고를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할 과제] – 말레이시아 박지민 자문위원

3) [함께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이 해야 할 역할] – 동남아 남부협의회 최태립 부회장

위와 같은 주제로 특별강연 및 토의 시간을 가졌다.

이세호 평통 회장은 뜨거운 토의를 벌인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2024년 민주평통의 의미있는 사업을 통해서 더욱 더 글로벌 복합위기의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다짐하고 많은 참여를 촉구하였다.

(제공: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사무국)

# 2023학년도 JIKS 중등 동아리 체험전 개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 학교장 이선아)는 2023년 12월 1일(금) 「2023 JIKS 동아리체험전」을 개최하였다.

중등 7~11학년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39개의 창체 동아리와 자율동아리에서 29개 체험 부스, 5개의 전시 부스, 4개의 영상부스로 진행이 되었다. 학생들은 본인이 속해있는 동아리 부스의 운영을 하면서 타 동아리 부스 체험 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장소는 강당, 과학실, 미술실, 정보실, 가사실, 테니스장, 농구장에서 진행되었으며 각 동아리 부스들은 동아리마다의 특성이 잘 들어난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다. 특히 동아리 부스를 방문하는 체험 학생들이 팸플릿 속 각 동아리 이름에 도장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행사의 재미를 덧붙이기도 했다.

동아리 체험 부스로는 예능 게임, 모의주식, CPR 실습,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 퀴즈, 수학 보드 게임, 배지 만들기, 커피 드립백 만들기, 인물 퀴즈, 영화 퀴즈, 다양한 과학실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감상, 배드민턴게임, 농구게임, 축구게임, 다양한 포토존, 음료, 음식 등이 준비되어 있어 다양한 부스를 방문한 학생들은 축제 같은 분위기로 체험전을 즐길 수 있었다.

몇몇 동아리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음식, 음료, 물품들을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수익금은 땅그랑지역 쓰레기마을 ‘루마인다 유치원’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동아리체험전은 본인이 속해있는 동아리를 소개하고 그 동아리활동을 체험하도록 하며 1년 동안의 동아리 활동을 잘 마무리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학생들은 동아리체험전이 끝나는 것을 아쉬워하며 내년의 동아리 활동과 체험전이 기대된다고 하였다.

# 월드옥타 자카르타지회 2023년 송년회 및 정기총회 개최

월드옥타 자카르타지회(회장 김종헌)은 지난 12월 6일 자카르타 근교 Cengkareng Golf Club에서 2023년 송년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부 행사는 회원 친목 골프대회에 이어서 2부에서는 월드옥타 자카르타지회 2023년 정기총회를 열고 김종헌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유임시켰다.

2023년 송년회에서 김종헌 회장은 “2023년 한 해 사업들을 회상하고 돌아보면, 자카르타 지회 고문과 임원 그리고 회원의 단합과 열심으로 아세안 경제인대회 등 많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면서 감사를 전했다.

월드옥타 자카르타지회 2023년 송년회 및 정기총회에는 김우재, 양영연, 박재한 고문 등 50여 임원 회원들이 참석해 우의와 단합을 다졌다.

# 천 눈

첫눈을 천눈으로 불러도 되는
그래 맞다!
누구에게나 그 처음은 있는 법
오늘 내린 눈처럼
곧 녹아 사라질 처음이겠지만
천 번은 눈 내리겠고
천 번은 더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글: 김주명
사진: 노현우, 청도 각북면 도연사(사찰) 마당에서

# 한국문인협회 2023년 한국문학상 시상식(3차)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이사장 김호운)이 주최하는 2023 문학상 (제3차) 시상식을 12월 5일 목동 대한민국 예술인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 시상식은 윤동주 문학상 .조연현 문학상 .박종화문학상. 한국문협출판문학상. 월간 문학 신인작품상 등 창작활동에 전념하는 문학인들의 업적을 포상하는 자리로 인도네시아지부 회장인 김준규 시인(한국 문협 인니지부회장)이 제1회 출판문학상을 수상하였다.

김민정부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시상식에서 김호운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학을 사랑하는 문인들의 숭고한 뜻을 존중하며 가족들의 배려를 바탕으로 문학활동을 하는 문우의 가족들에게 감사” 의 뜻을 전했다.

무엇보다 올해 첫 수상자인 김준규 시인의 두 번째 시집 『낙엽의 귀향』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문인으로서는 첫 수상자로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시상식에 참석한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들은 출판문학상 첫 수상자인 김준규 시인이자 수필가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존경하는 마음을 보냈다.

지금까지 해외동포들의 문학활동은 변방의 문학으로 간주, 기성 한국문단에 비해 조금은 결이 다르게 다루어졌음이 사실이다. 이번 김준규 회장의 출판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재외동포 작가의 활동 역량을 고국의 문단까지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자부한다.

(제공: 한국문협 인니지부)

#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 제1장 한국-인도네시아 외교 50년

(편집자주) 한인뉴스는 2023년 9월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인도네시아어판으로 발간한 책 "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 "Merajut Persahabatan dan Memupuk Kepercayaan" )의 한글 원본을 1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 I. 태동기(1949~1972년): 인도네시아 국가 승인부터 외교 관계 수립 전까지

1) 남한과 북한과의 외교전… 초반의 열세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에 따라 외국의 국가 승인 및 자유우방과의 우호관계 증진에 1차적 목표를 두고 아시아 신생독립국과의 관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러한 외교 정책에 따라 한국 정부는 1949년 12월 30일 신생독립국 인도네시아의 국가를 승인을 하였다.

동서냉전기인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은 비공산권 및 제3세계에 대한 외교공세를 펼친다. 특히 비동맹운동 창설의 중심적 역할을 한 인도네시아와의 우호관계 구축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인도네시아 간에는 외교관계 수립, 정상 간 교류 등 관계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북한-인도네시아 간에는 1958년 8월 주인도네시아 북한 무역대표부가 개설되었고 인도네시아 예술사절단 북한 방문, 1959년 6월 인도네시아-북한 친선협회 구성, 1960년 6월 인도네시아 언론인 북한 방문, 1961년 6월 주인도네시아 북한 총영사관 개설, 1964년 4월 대사급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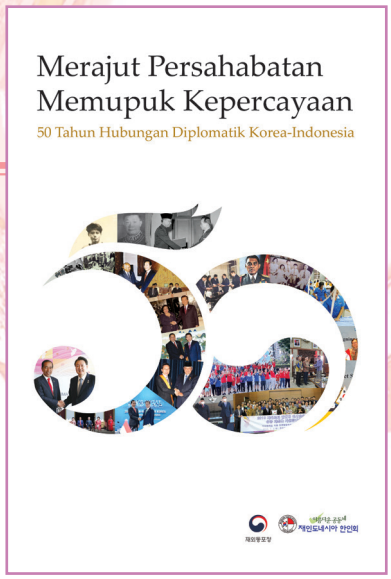
정상 간 교류에서는 1964년 수카르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데 이어 1965년 4월 김일성 주석의 인도네시아 답방이 이루어졌다(김정일 동행). 북한과 비교해 남한은 1981년 6월 전두환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과 1982년 수하르토 대통령의 방한이 정상 간 첫 교류였다

1964년 수카르노 대통령 방북 시 김일성 주석은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에 맞서 압박을 받은 민족들의 공동전선을 형성할 필요성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1965년 김일성 주석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그의 첫 번째 비공산국가 방문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북한이 인도네시아와의 외교관계 개선에 두었던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비동맹운동 창설의 기초가 되었던 1955년 반둥회의(Bandung Conference 또는 Asian-African Conference, 북한은 불참)를 주도하면서부터 북한은 인도네시아의 외교적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1964년 인니여당 간사장 수비안또와 수카르노대통령양녀 사디킨여사 박정희대통령 예방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1956년 김일성 주석은 반둥회의에서 채택된 원칙들을 언급하면서 비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유지의 중요성과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 2)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관계의 시작… 총영사관 개설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까지 북한과 인도네시아 관계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발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양국 간 고위급 인사 교류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등 양국 간 관계개선이 시작되었다.

1962년 7월 6일 한국 외무부 문서에는 1960년 6월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 친선사절단 방문을 거부하였으며, 1962년 3월에도 한국 경제사절단 입국을 거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1961년 북한-인도네시아 영사관계수립과 1964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등 북한과의 관계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측이 남한과의 관계 구축에 부담을 느낀 조치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문화 · 스포츠 차원에서는 일부 교류가 이루어졌다. 1962년 4월 이상백과 월터 정이 아시아올림픽 상임위원회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체육장관 말라디(Maladi)와의 면담에서 수카르노 대통령에게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건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1962년 5월에는 한국축구단이 방문하여 친선경기가 열렸다.

북한-인도네시아 관계가 진전되는 상황 하에서 남한 정부 고위인사의 인도네시아 방문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 1960년대 초 경제적 차원에서 한국 기업의 주도로 양국 고위인사 간 접촉이 이루어지게 된다. 당시 산림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 진출했던 ㈜한국남방개발(현 KODECO) 최계월 회장은 한국 기업인으로는 최초로 1962년 1월 수카르노 대통령을 예방하였으며, 1962년 2월 일본 도쿄에서 김종필 중앙정보부 부장과 수카르노 대통령 간 만남을 주선했다.

한편 1964년 한국 정부 인사로는 최초로 산림조사단(단장 심종섭)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최계월 회장과 함께 수카르노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1964년 인도네시아 여당 수비안또 간사장과 수카르노 대통령 양녀 사디킨 여사가 산림협회 협의차 방한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했다.

1965년 인도네시아 정변(9.30사태/G30S)으로 인도네시아공산당(PKI: Partai Komunis Indonesia)이 붕괴되고 친미 · 반공 노선의 수하르토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도네시아 북한 간의 친선관계가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개선의 환경이 조성됐다.

인도네시아 국가승인 이후 17년만인 1966년 12월 한국 정부는 당시 주태국 이창희 공사(후에 인도네시아 초대 총영사로 발령)를 자카르타에 파견하여 한-인니 양국 간 영사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자카르타에 총영사관을 개설하였다.

1966년 당시 한국 정부는 대외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외교관계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할슈타인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북한 공관이 이미 상주하고 있던 자카르타에 한국 총영사관을 개설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의 대동남아 외교 공세 강화로 북한이 위축되어 있고, 1965년 인도네시아 정변 사태로 북한의 활동이 극히 위축된 상태에 있어 한국 총영사관 개설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

인도네시아는 2년 뒤인 1968년 서울에 총영사관을 개설하고 수깜또 사이디만(Soekamto Saydiman)을 초대 총영사로 파견하였다. 제2대 총영사는 베니 무르다니(Leonardus Benny Moerdani)로 현지 한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인물이며, 1973년 양국 관계가 대사급을 격상하면서 대리대사로 근무했다.

### ★ 지한파 베니 무르다니 장군… 인도네시아 현대사의 주역

인도네시아가 독립 이후 격변기를 겪을 때마다 주역으로 등장하는 베니 무르다니(1932~2004년) 장군은 한국과 매우 인연이 깊은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 가운데 한 명이다.

1932년 중부자바 지역에서 태어난 베니 무르다니는 1956년 육군 소위로 임관, 1961년 미국에서 특수전 교육을 받은 후 줄곧 특전사 장교로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수카르노 정권 당시인 1958년 수마트라와 술라웨시에서 일어난 '인도네시아공화국 혁명정부(PRRI)' 반란 사건, 1964년 말레이시아와의 대결정책, 1961년 이리안자야(현 서부파푸아) 머라우께 지역 군사작전 지휘, 1965년 공산당 쿠데타 9.30정변 등.

수하르토 정권에서 1974년 다나카 일본 수상의 인도네시아 방문 시 발생한 반일 폭력시위인 말라리(Malari)사태, 1975년 동티모르 사태, 1981년 가루다항공 납치 사건, 1984년 딴중쁘리옥 이슬람사원 사태 등의 진압을 지휘한 주인공이다.

Leonardus Benny Moerdani

베니 무르다니는 1971년 당시 육군 대령으로 제2대 주한 인도네시아 총영사로 부임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는다. 그는 3년여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한국인과 친근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3년 양국 관계가 대사급을 격상하면서 현역 군인 신분으로 대리대사로 근무했다.

1974년 1월에 본국으로 귀임해서는 국방부 정보국장, 통합군사령관,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요직을 맡았다. 수하르토 정부의 군부 실세였던 베니 장군은 인도네시아 한인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한국 기업을 후원했으며, 현지 한인들과 교분관계가 두터웠다. 한국의 탄약과 전투복 등 방산제품 수입과 한국의 마두라 유전 개발 참여에 큰 역할을 하는 등 양국 군사 및 경제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

수하르토 정부의 실력자이자 2인자였던 베니 장군은 1993년 수하르토 대통령의 6선 연임을 앞두고, 수하르토의 사위인 쁘라보워 수비안또와의 경쟁과 수하르토 정권과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 2023. 11.12. ~ 2024. 02.10.

제22대 [신고·신청]

# 국회의원 재외선거

**The 22nd Overseas Elections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합니다.

**To vote for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voters shall make a report and register as overseas eligible voters**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Period of reporting an overseas absentee

**2023.11.12.~2024.02.10.**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기간

Period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alter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n overseas voter

**2024.02.10. 까지**

By 2024.02.10.

### 투표기간

Voting Period

**2024.03.27.~04.01.**

매일 08:00~17:00 every day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The voting period may vary from one diplomatic mission to another.

### 신고·등록신청 방법

How to make a report and register as overseas eligible voters

**인터넷(ova.nec.go.kr)**

Via Internet website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Go to the Report and Register page

ova.nec.go.kr

**공관방문·순회접수**

Visit a Korean Embassy or Consulate in person or file a written application in person with a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s employee who travels around its jurisdiction

**우편·전자우편**

By mail or E-mail

※ 해당 공관에 문의

Please contact the relevant Korean Embassy or Consulate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 가능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s for the Overseas Election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k.nec.go.k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and Overseas Koreans Agency (oka.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연재

#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헌법은 한 국가의 조직과 운용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17일 독립선언 직후 공포한 1945년 헌법이 잠깐 동안 중단된 이외에는 현재까지도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1997년 7월 시작된 환란과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강한 염원의 결과로 32년 동안 군부를 대표하여 철권통치를 한 Suharto(수하르토) 대통령이 1998년 5월 하야한 후, 1999년 10월 1차 개정, 2000년 8월 2차 개정, 2001년 11월 3차 개정, 2002년 8월 4차 개정을 하였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3년 간이 인도네시아 민주화 역사에 격변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 2001년의 3차 헌법 개정은 1945년 건국이후 56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초석을 놓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의 권력을 민주주의의 원칙인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로 분립시켰으며, 임명제 국회의원을 완전히 없애고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국민의 대표만으로 입법부를 구성하게 하였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이 그동안의 간선제에서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Susilo Bambang Yudoyono(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2004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첫 대통령이며 소속된 정당이 입법부에서 군소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적인 내용으로 개정된 헌법과 국민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대한 염원덕택 때문이다. 개정 전에 헌법에는 삼권분립이 없이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MPR)가 국가의 최고 기관으로서 국민주권을 대행하며, 국민협의회 밑에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대통령(Presiden), 감사원(Badan Pengawas Keuangan/BPK),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와 대법원(Mahkamah Agung/MA) 등 이상 다섯 개의 국가 기관을 동등한 위치에 뒀으나, 현행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및 감사원 이상 4개로 분립시키고,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PR), 국회(DPR) 및 지방대표국회(DPD)로, 행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Wakil Presiden)로, 사법부는 대법원(MA), 사법위원회(Komisi Yudisial/KY) 및 헌법 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로 구성시켰다. 아울러서 2004년부터는 그 전에 투표를 거치지 않고 임명 형식으로 국정 최고의 기관인 국민협의회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대리인 노릇을 해 온 군부/경찰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직을 없애 버렸으며, 권력의 시녀로써 앞장서 왔다고 비판받은 직능 대표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도 없애 버림으로써, 입법부에는 100%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의원만이 국민을 대리하게 됐고,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볼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권력의 핵인 대통령의 권한이 군주제 국가의 군주의 권력 못지않게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헌법은 삼권분립은 되었으나 상호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1. 인도네시아의 헌법 변천사

### 가. 네델란드 식민통치 이전의 헌법

인도네시아를 350 여년 동안 식민통치한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기 전에 인도네시아는 수 많은 섬에 산재한 부족국가의 형태이었으며, 인도네시아에 역사에 현 인도네시아의 영토에 버금하는 대국을 이뤘던 남부 수마뜨라 빨렘방 중심의 스리위자야(Sriwijaya) 왕국(*왕오천축국전의 저자 신라의 고승 혜초가 인도로 유학하기 전 3년 동안 머물면서 싼스크리트어를 배웠던 곳), 동부 자바를 중심으로 했던 마자빠힛(Majapahit) 왕국 과 중부 자바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마따람(Mataram) 왕국이 있었으나, 헌법이라고 부를만한 법률은 없었으며, 네덜란드 통치 시 네덜란드 학자들이 인도네시아 전체를 19개의 관습법 지역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 나. 네덜란드 식민통치 기간의 헌법

네덜란드는 처음에는 동인도회사(Verenigde Oost-Indische Compagne/VOC)를 통하여 인도네시아를 다스렸으나 경제 교류와 인적교류가 증가

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정식 식민지로 편입시키고 i) 1848년 인도네시아를 다스리는 법률(Algemene Bepalingen van Wetgeving/AB)을 채택하고 주민을 유럽계 주민과 원주민을 구분하여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ii) 그 후 1854년 네덜란드는 새 법(Regering Reglement/RR)을 채택하여 유럽계도 원주민도 아닌 아랍계 주민, 인도계 주민 및 중국계 주민은 원주민계로 구분했고, 미국계 주민, 호주계 주민 및 일본계 주민은 유럽계로 구분하여 통치했다.
iii) 다시 1920년 새 법(Indische Staatsregeling/IS)을 발효시켜, 전체 주민을 유럽계, 원주민계 및 외국 동양인계로 구분하였다. 유럽계 주민은 네덜란드인, 네덜란드계 이외의 유럽인, 일본인, 여타 지역 출신 서양인, 유럽계의 후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한 자, 유럽계 주민이 입양한 자를 의미하고, 외국동양인계 주민은 유럽계 혹은 원주민에 속하지 않은 동양계 주민을 의미하고, 원주민은 유럽계 혹은 외국동양계에 속하지 않은 주민을 의미하며,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한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출신지별로 나눠 계열로 구분하고 계열에 따라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AB, RR 혹은 IS는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이 아니고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통치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령으로써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는 350 여년 동안 네덜란드의 헌법아래 놓여 있었다.

다. 일본 통치 기간의 헌법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 공격 5시간 후 인도네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네덜란드 총독은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파죽지세로 동남아를 점령하기 시작하여 1942년 1월 12일 북부 깔리만딴의 따라깐(Tarakan)을 점령하고, 계속하여 발릭빠빤(Balikpapan), 사마린다(Samarinda), 뽄띠아낙(Pontianak)을 점령하고, 2월 10일에는 남부 깔리만딴의 반자르마신(Banjarmasin)을 점령하고, 3월 1일에는 남부 수마뜨라의 빨렘방(Palembang)을 점령하고, 3월 8일 서부 자바 반둥(Bandung)에서 네덜란드군 육군 사령관으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 인도네시아를 점령했다. 일본 점령군은 인도네시아를 3등분하여 군통치를 실시했다. 서부 수마뜨라의 부낏 띵기(Bukit Tinggi)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5군단이 수마뜨라를 통치했으며, 자까르따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4군단이 자바와 마두라(Madura)를 통치했으며, 술라웨시의 마까사르(Makasar)에 본부를 두고 해군 제2 남부해전단이 술라웨시, 깔리만딴, 말루꾸를 통치했다.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통치한 약 3년 반 동안 네덜란드 식민정부 하에서 설립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기능을 상실했으며 치안기능유지와 종교법원 정도가 명맥을 유지했다.

(1) 그러나 패전의 징후가 보이는 1945년 5월 28일 일본군은 인도네시아 독립연구원(Badan Penyelidik Usaha-Usah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
BPUPKI)을 설립했다. BPUPKI의 구성은 원장은 인도네시아인, 제1부원장은 일본인, 제2부원장은 인도네시아인, 이외에 8명의 일본인 특별연구원 및 60명의 인도네시아인 연구원이 임명되어 총 71명으로 구성되었다. BPUPKI 내에 헌법초안 위원회(*위원장은 초대 대통령 수까르노)가 1945년 8월 첫 주간에 헌법 초안을 마련했으며,

(2) 일본군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 직전인 1945년 8월 12일 일본군 사령관 데라우치 히사치 해군제독이 독립준비위원회(Paniti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PPKI) 설립을 승인하고 수까르노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PPKI는 2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제로는 짧은 기간만 존재했다. 인도네시아의 BPUPKI와 PPKI의 설립 과정과 구성원을 보면 일본이 BPUPKI와 PPKI를 설립한 의도가 인도네시아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패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종전 후 장기적으로 다분히 일본의 국익을 염두에 두고 인도네시아 독립을 지원해준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 호에 계속)*

# 일상생활 속 BAHASA

## 고젝 서비스 이용할 때 택배 기사와의 대화

**# 주문을 받은 택배기사가 고젝 신청자(물건 발송인)에게 전화를 건다.**

A: Siang. Ini Mrs. Choi? Saya dari Gojek.
(안녕하세요? 미세스 최 맞으신지요? 고젝에서 연락드립니다.)
B: Siang. Saya Mrs. Choi sendiri.
(안녕하세요? 제가 미세스 최입니다.)
A: Saya mau jemput barang di alamat OOO. Kira-kira ada orang di rumah?
(제가 OOO에서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댁에 누가 계신가요?)
B: Ya, ada. Boleh pick-up sekarang. 또는 Ya, ada. Saya dah titip barang ke asisten rumah tangga.
(네, 있어요. 지금 가지러 오세요. 또는 네, 있어요. 제가 가정부에게 물건을 맡겨놓았어요.)

**# 물건을 픽업한 택배기사가 물건을 받을 사람에게 전화를 건다.**

A: Sore. Saya dari Gojek. Ini Mrs. Lee, ya?
(안녕하세요. 고젝에서 연락드립니다. 미세스 리 맞으신지요?)
B: Ya, Benar. Pak, dari Apartemen Kintamani ya?
(네 맞아요. 낀따마니 아파트에서 오시는 거죠?)
A: Iya, bu. Tapi Saya kurang tahu jalan di slipi. Patokannya di mana?
(네, 사모님. 그런데 제가 슬리피 길을 잘 몰라서요. 어디와 가깝나요?)
B: Dekat Gedung Grand Slipi Tower. Di sebelahnya ada apartemen Slipi.
(그랜드 슬리피 타워 건물과 가까워요. 그 옆에 슬리피 아파트가 있어요.)
A: O, gitu. Oke bu. Saya coba cari. Ditunggu, ya.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제가 한 번 찾아볼게요. 기다려주세요.)

**# 물건을 가져왔는데 아파트 경비가 고젝 기사를 못 들어가게 하자, 고젝 기사가 다시 물건 수령인에게 전화를 건다.**

A: Bu, Saya sudah sampai di lobi. Tapi satpamnya bilang saya ga boleh naik. (tapi satpamnya melarang saya naik.)
(사모님, 저 지금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삿빰(경비원)이 저를 못 올라가게 하네요.)
B: Boleh saya bicara dengan satpamnya?
(그 삿빰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A: Sebentar ya.
(잠시만요.)
B: (삿빰과의 통화) Sore, pak. Pak, Saya Mrs. Lee di unit 8C. Saya yang pesan gojek, suruh naik aja ya, Makasih. (안녕하세요? 저는 8C호에 사는 미세스 리입니다. 제가 고젝을 주문했어요. 바로 올라오라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C: O, gitu, bu. Oke. Saya suruh naik ya.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올라가라고 할게요.)

# 2024, 제6회 적도문학상 공모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한 한국문학 단체인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에서 우리 문학의 맥을 잇고 발전시켜 나갈 우수한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4년 제6회 적도문학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신인 작가의 등용문으로 자리 매김하고있는 본 문학상에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응모 대상

미등단 신인으로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에 거주하는 성인

### 부문

시, 소설, 수필(전 부문 자유주제)

### 응모 방법

시(3편 이상), 수필 2편, 단편소설 1편

### 분량

◆ 시는 자유분량, 수필은 A4 기준 2매(글자 11p)
◆ 소설은 1만자 내외

### 공모기간 및 접수

2024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메일 접수 munhyup2022@outlook.com

### 특전

◆ 대상 수상자에게는 등단작가의 예우
◆ 당선작가 전원에게는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가입자격 부여

### 시상 내역

수상자 발표 2024년 6월 하순경, 시상식은 별도 공고 (8월 하순경)

| 구 분 | 인 원 | 상 금 |
|---|---|---|
| 적도문학상 대상 | 1명 | 1천만 루피아 |
| 최우수상 | 3명 | 5백만 루피아 (부문별 1명) |
| 우수상 | 3명 | 3백만 루피아 (부문별 1명) |
| 장려상 | 3명 | 2백만 루피아 (부문별 1명) |

※응모작에 따라 부문별 수상자가 달라질 수 있음

### 주의사항

◆ 응모작은 반드시 미발표 창작물이여야 함
◆ 표절 및 저작권 시비가 있는 경우 당선취소 됨
◆ 응모작에는 별도의 용지에 주소 및 연락처 기재
◆ 당선작의 저작권은 작가와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공유

### 문의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사무국
+62831 1513 8818, +62819 3117 3661

■ 주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인도네시아지부 ■ 후원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 한인 문예총 / 한인포스트 / PT. CIPTA ORION METAL

반려동물 랜선집사

# 떡실신 햄스터

햄스터 돌보미 : Han's brother (한동훈 & 한예성)

## 로보로브스키(Roborovski)

아빠 햄스터: 치즈(모짜렐라 치즈처럼 늘어져 잠), 2023년 어느 봄날 태어남
엄마 햄스터: 베리 (두 눈이 똘망똘망), 2023년 어느 봄날 태어남.
아기 햄스터 1: 버터 (다른 햄스터보다 털이 노람), 2023년 06월생
아기 햄스터 2: 땅콩 (체구가 제일 작음. 막내), 2023년 06월생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로 6년차 햄스터 돌보미입니다.
로보로브스키 햄스터 가족은 저희 형제가 맞이한 3번째 가족입니다.

로보로브스키는 자그마한 체구에 겁이 많아서 움직임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핸들링이 어려운 편이랍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인 베리&치즈는 우리와 교감도 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있어요. 지난 6월 베리가 아기 햄스터 5마리를 낳았어요. 그런데 제일 작았던 아기 햄스터는 태어난 지 3일만에 너무 빨리 무지개 다리를 건너 갔어요. 흑흑흑…ㅠㅠ 아기 햄스터 2마리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 사랑 듬뿍 받으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주특기가 발라당 누워 자기, 떡처럼 늘어져 자기, 숨어서 '호박씨 까기' 랍니다.
사슴 같이 까만 눈망울에 저의 마음이 사르르 녹아요.
늘 붙어있는 햄스터 가족을 보면 우리 가족을 보는 것 같아요.

"햄! 머~~엉,햄멍!!"

수카르노가 꿈꾼
'자유롭고 적극적인' 인도네시아,
그 흔적을 찾아 걷습니다.

Jalan-Jalan

한인니문화연구원 열린강연·문화탐방 338회

# 수카르노의 꿈

Sukarno

2024년 1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 Hotel Indonesia Kempinski,
Lobby Nirwana Lounge

With. 박준영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 수료
한인니문화연구원 도시연구팀장

▶ 회비: 200,000 루피아 (음료제공)

▶ 신청: 카카오톡 (ID: lilac4004) 0815 1901 0570 또는

탐방 순서: 호텔 인도네시아(강연) - 환영 동상 - 사리나 백화점 - Kawisari(점심)

대부분의 일정과 강연은 실내에서 진행하지만, 이동을 위해 야외를 약 15분 걷습니다.
편한 복장과 운동화를 착용하고, 야외 이동을 위한 모자와 선글라스, 물 등을 준비하세요.

* 구체적인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시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

# 2023 임원회비 납부명단

기준 : 2022.12.28 ~ 2024.12.29

| 번호 | 직책 | 성명 | 회사명 | 금액(US$) | 비고 |
|---|---|---|---|---|---|
| 1 | 회장 | 박재한 | PT. BUSANA PRIMA GLOBAL | 20,000 | |
| 2 | 명예회장 | 신기엽 | PT. HANINDO EXPRESS UTAMA | 10,000 | |
| 3 | 명예회장 | 양영연 | PT. TAEWON INDONESAI | 10,000 | |
| 4 | 명예고문 | 김우재 | PT. KOIN BUMI | 5,000 | |
| 5 | 고문 | 김우진 | PT. SAMINDO ELECTRONICS | 5,000 | |
| 6 | 고문 | 김준규 | PT. CIPTA ORION METAL | 5,000 | |
| 7 | 고문 | 배도운 | PT. DOOSAN CIPTA BUSANA JAYA | 10,000 | 2022 ~ 2023 |
| 8 | 고문 | 송창근 | PT. KMK GLOBAL SPORT | 5,000 | |
| 9 | 고문 | 신규태 | PT. INDO SUNG IL JAYA | 5,000 | |
| 10 | 고문 | 이호덕 | PT. ROYAL SUMATRA GROUP | 5,000 | |
| 11 | 고문 | 최덕열 | PT. SHINTA WOOSUNG | 5,000 | |
| 12 | 수석부회장 | 김종헌 | PT. KOIN BUMI | 10,000 | |
| 13 | 수석부회장 | 손한평 | PT. DONGSAN HOLDINGS | 10,000 | |
| 14 | 수석부회장 | 채영애 | 한인회 여성분과 | 10,000 | |
| 15 | 부회장 | 강선학 | PT. ALPHA TOY INDONESA | 5,000 | |
| 16 | 부회장 | 강호성 | PT. ANUGERAH CITRA MOULD INDONESIA | 10,000 | 2022 ~ 2023 |
| 17 | 부회장 | 김문수 | PT. QUTY KARUNIA | 5,000 | |
| 18 | 부회장 | 김종희 | PT. YOUNG JIN INDONESIA | 5,000 | |
| 19 | 부회장 | 김창곤 | KODECO ENERGY CO LTD | 5,000 | |
| 20 | 부회장 | 박상갑 | PT. VIDEX INDONESIA | 5,000 | |
| 21 | 부회장 | 박성대 | PT. HANJIN INDONESIA JAYA | 5,000 | |
| 22 | 부회장 | 승범수 | TSE GROUP | 5,000 | |
| 23 | 부회장 | 양태화 | PT. BOSUNG INDONESIA | 5,000 | |
| 24 | 부회장 | 이광옥 | PT. YUNI INTERNATIONAL | 5,000 | |
| 25 | 부회장 | 이우열 | PT. BANK KB BUKOPIN TBK | 5,000 | |
| 26 | 부회장 | 이정호 | PT. HEONZ ROYAL JAYA | 5,000 | |
| 27 | 부회장 | 이정휴 | PT. GEE SAN INDONESIA | 5,000 | |
| 28 | 부회장 | 이종남 | PT. SINYOUNG ABADI | 5,000 | |
| 29 | 부회장 | 이주한 | PT. MEDISON JAYA RAYA | 5,000 | |
| 30 | 부회장 | 장윤하 | PT. HARINDO | 5,000 | |
| 31 | 부회장 | 정용완 | PT. HUNG A INDONESIA | 5,000 | |
| 32 | 부회장 | 오인택 | PT. BANK IBK INDONESIA TBK | 5,000 | |
| 33 | 부회장 | 최재혁 | PT. HILON INDONESIA | 5,000 | |
| 34 | 부회장 | 하재수 | PT. ROYAL PUSPITA | 5,000 | |
| 35 | 부회장 | 황규순 | 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 5,000 | |
| 36 | 자문위원장 | 구종율 | PT. JASINDO DUTA SEGARA | 2,000 | |
| 37 | 자문위원 | 강희중 | PT. SUNG TECHNOLOGY | 1,000 | |
| 38 | 자문위원 | 김소웅 | PT. SCI | 1,000 | |
| 39 | 자문위원 | 김영만 | PT. BATAVIA CHEMTEK | 1,000 | |
| 40 | 자문위원 | 김영욱 | PT. GAYA INDAH KHARISMA | 1,000 | |
| 41 | 자문위원 | 김영주 | PT. DEWA CITRA SEJATI | 1,000 | |
| 42 | 자문위원 | 김주철 | PT. STAR CAMTEX | 2,000 | 2023 ~ 2024 |

| 번호 | 직책 | 성명 | 회사명 | 금액(US$) | 비고 |
|---|---|---|---|---|---|
| 43 | 자문위원 | 김태화 | PT. EEN STEEL INDONESIA | 1,000 | |
| 44 | 자문위원 | 김희익 | PT. EPS INDONESIA | 1,000 | |
| 45 | 자문위원 | 박의태 | PT. SKYTAPE INDONESIA | 1,000 | |
| 46 | 자문위원 | 석웅치 | PT. DAYUP INDO | 1,000 | |
| 47 | 자문위원 | 엄정호 | PT. ING INTERNATIONAL | 1,000 | |
| 48 | 자문위원 | 오세명 | PT. SUNG LIM CHEMICAL | 1,000 | |
| 49 | 자문위원 | 이승민 | YSM & PARTNERS | 1,000 | |
| 50 | 자문위원 | 이종현 | PT. LEO KORINSIA | 2,000 | 2023 ~ 2024 |
| 51 | 자문위원 | 이진수 | PT. SUNGBO JAYA | 1,000 | |
| 52 | 자문위원 | 이진호 | PT. JIN YOUNG | 1,000 | |
| 53 | 자문위원 | 조규철 | PT. DONGJUNG INDONESIA | 1,000 | |
| 54 | 자문위원 | 조현보 | PT. KOMITRANDO-EMPORIO | 1,000 | |
| 55 | 자문위원 | 채만용 | PT. CITRA BINA MAJU JAYA | 1,000 | |
| 56 | 자문위원 | 하연수 | PT. SEOLIN NIAGATAMA | 1,000 | |
| 57 | 이사 | 강기석 | PT. GREEN MEDICA | 1,000 | |
| 58 | 이사 | 강병찬 | PT. GLOBAL INDOREKSA ASIA | 2,000 | 2023 ~ 2024 |
| 59 | 이사 | 강수한 | PT. CHAEUM DESIGN | 1,000 | |
| 60 | 이사 | 강윤석 | PT. PLATECH MOLD INDONESIA | 1,000 | |
| 61 | 이사 | 강형구 | PT. TUGU INSURANCE BROKERS | 1,000 | |
| 62 | 이사 | 길병완 | PT. DAEYONG DUNIA SUBUR | 1,000 | |
| 63 | 이사 | 김경곤 | PT. SUKWANG INDONESIA | 1,000 | |
| 64 | 이사 | 김동석 | PT. DUNIA TRANSPORTASI LOGISTIK | 1,000 | |
| 65 | 이사 | 김민규 | PT. WOORI CONSULTING | 1,000 | |
| 66 | 이사 | 김서겸 | PT. ACCENTUATES | 1,000 | |
| 67 | 이사 | 김신 | PT. YUBI TECHNOLOGY | 1,000 | |
| 68 | 이사 | 김영섭 | PT. INDIGO MEDICAL | 1,000 | |
| 69 | 이사 | 김영율 | PT. SUNG CHANG INDONESIA | 1,000 | |
| 70 | 이사 | 김영주 | PT. SAINT JAMES | 1,000 | |
| 71 | 이사 | 김옥준 | BSI GROUP | 2,000 | 2022 ~ 2023 |
| 72 | 이사 | 김일태 | PT. OROM | 1,000 | |
| 73 | 이사 | 김종성 | LAW FIRM INDOYANG & PARTNERS | 1,000 | 2022 |
| 74 | 이사 | 김종화 | PT. ART MOLD INDONESIA | 1,000 | |
| 75 | 이사 | 김형근 | PT. GAYA INDAH KHARISMA | 1,000 | |
| 76 | 이사 | 김호권 | PT. SUNSHINE TECHNICA INDONESIA | 1,000 | |
| 77 | 이사 | 김화룡 | PT. BANGUN MAJU LESTARI | 1,000 | |
| 78 | 이사 | 노예범 | PT. SAM PUTRA INTI | 1,000 | |
| 79 | 이사 | 류재철 | PT. HANKOOK CERAMIC INDONESIA | 1,000 | |
| 80 | 이사 | 박광률 | PT. SHINWOO GLOBAL INDONESIA | 1,000 | |
| 81 | 이사 | 박영진 | PT. JUBIT CONSULTING INDONESIA | 1,000 | |
| 82 | 이사 | 박주상 | PT. TOU RUBBER INDONESIA | 1,000 | |
| 83 | 이사 | 방진학 | PT. HANSUNG INDOTAMA WORLDO | 1,000 | |
| 84 | 이사 | 백상현 | PT. CKD OTTO PHARMACEUTICALS | 1,000 | |

| 번호 | 직책 | 성명 | 회사명 | 금액(US$) | 비고 |
|---|---|---|---|---|---|
| 85 | 이사 | 서영률 | PT. PRATAMA ABADI | 1,000 | |
| 86 | 이사 | 서준형 | PT. TACHYON INDO | 1,000 | |
| 87 | 이사 | 성예식 | PT. F1 LOGIX INDONESIA | 1,000 | |
| 88 | 이사 | 손석기 | PT. PERKASA INDAH MAKMUR | 1,000 | |
| 89 | 이사 | 송영한 | PT. KOFORM INDONESIA | 1,000 | |
| 90 | 이사 | 송판원 | PT. KORYE POLIMER | 1,000 | |
| 91 | 이사 | 신성철 | PT. DAILY INDONESIA | 1,000 | |
| 92 | 이사 | 신호진 | PT. HANINDO EXPRESS UTAMA | 1,000 | |
| 93 | 이사 | 안선근 | U.I.N UNIVERSITY | 1,000 | |
| 94 | 이사 | 안윤근 | PT. YONG WOO INTERNATIONAL | 1,000 | |
| 95 | 이사 | 안창섭 | PT. PETRASAKTI MADYATAMA | 1,000 | |
| 96 | 이사 | 양시완 | PT. KISWIRE INDONESIA | 1,000 | |
| 97 | 이사 | 염정윤 | PT. HANSAE INDONESIA UTAMA | 1,000 | |
| 98 | 이사 | 오동훈 | PT. FNS TRANSBUANA | 1,000 | |
| 99 | 이사 | 유용선 | PT. DAE HWA INDONESIA | 1,000 | |
| 100 | 이사 | 이근대 | PT. DONGBANG | 1,000 | |
| 101 | 이사 | 이상일 | PT. UNGARAN INDAH BUSANA | 1,000 | |
| 102 | 이사 | 이성삼 | PT. LIGA SEJATI SEJATRA | 1,000 | |
| 103 | 이사 | 이소왕 | PT. DOOWANG INDONESIA | 1,000 | |
| 104 | 이사 | 이승수 | PT. SINYOUNG ABADI | 1,000 | |
| 105 | 이사 | 이옥찬 | PT. KORINA SEMARANG | 1,000 | |
| 106 | 이사 | 이완주 | PT. PERTIWI INDO MAS | 1,000 | |
| 107 | 이사 | 이지완 | PT. JIN YOUNG | 1,000 | |
| 108 | 이사 | 이지현 | PT. ZIMMOAH MARINE TRANS | 2,000 | 2022 ~ 2023 |
| 109 | 이사 | 이철훈 | PT. INDO BOX UTAMA JAYA | 1,000 | |
| 110 | 이사 | 이한주 | PT. SAJI SEGAR LESTARI | 1,000 | |
| 111 | 이사 | 이희경 | PT. PRIME FREIGHT INDONESIA | 1,000 | |
| 112 | 이사 | 임일택 | PT. ACE MOLD TECH | 1,000 | |
| 113 | 이사 | 장수봉 | PT. YOUME INDONESIA | 1,000 | |
| 114 | 이사 | 장영관 | PT. LAYCO | 1,000 | |
| 115 | 이사 | 정창섭 | PT. DAEWOO LOGISTICS ASIA | 1,000 | |
| 116 | 이사 | 정태영 | PT. GANGSAN GLOBAL MARKETING | 1,000 | |
| 117 | 이사 | 조용재 | PT. FOOD KOREA INDONESIA | 1,000 | |
| 118 | 이사 | 최재혁 | PT. INDO BUMI LESTARI | 1,000 | |
| 119 | 이사 | 최재희 | PT. STONE CANYON INDONESIA | 1,000 | |
| 120 | 이사 | 최제동 | PT. CMS CHEMICAL INDONESIA | 1,000 | |
| 121 | 이사 | 최태립 | PT. INTERNAT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 | 1,000 | |
| 122 | 이사 | 표기훈 | PT. HIT | 2,000 | 2022 ~ 2023 |
| 123 | 이사 | 현경원 | PT. HANA HOLIDAY | 1,000 | |
| 124 | 이사 | 홍종서 | PT. ARION TECH INDONESIA | 1,000 | |
| 125 | 이사 | 황의상 | PT. SEPULUH SUMBER ANUGERAH | 1,000 | |
| 126 | | NO NAME | SPP ANSI YEON YOON | 1,000 | 2023.11.3 |

# 2023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 기준 : 가나다순

| 번호 | 성 명 | 금액(IDR) |
|---|---|---|
| 1 | 김종훈 | 300,000 |
| 2 | 이정휴 | 300,000 |
| 3 | 박주상 | 300,000 |
| 4 | 최석일 | 300,000 |
| 5 | 박성호 | 300,000 |
| 6 | 김옥준 | 300,000 |
| 7 | 채만용 | 300,000 |
| 8 | 김윤경 | 300,000 |
| 9 | 안진호 | 300,000 |
| 10 | 김영율 | 300,000 |
| 11 | 조용재 | 300,000 |
| 12 | 김창근 | 300,000 |
| 13 | 김대근 | 300,000 |
| 14 | 서정현 | 300,000 |
| 15 | 석웅치 | 300,000 |
| 16 | 김희순 | 300,000 |
| 17 | 이지선 | 500,000 |
| 18 | 문해정 | 3,000,000 |
| 19 | 김영실 | 300,000 |
| 20 | 김성진 | 300,000 |
| 21 | 주용석 | 300,000 |
| 22 | 임경미 | 300,000 |
| 23 | 강명도 | 1,505,236 |
| 24 | 임원빈 | 300,000 |
| 25 | 오세명 | 300,000 |
| 26 | 정사무엘 | 300,000 |
| 27 | 최혜진 | 300,000 |
| 28 | 강호성 | 300,000 |
| 29 | No Name | 500,000 |
| 30 | 이성재 | 300,000 |
| 31 | 구종율 | 300,000 |

| 번호 | 성 명 | 금액(IDR) |
|---|---|---|
| 32 | 정창섭 | 300,000 |
| 33 | 이우열 | 300,000 |
| 34 | 정순 | 300,000 |
| 35 | 이성용 | 300,000 |
| 36 | 이현용 | 300,000 |
| 37 | No Name | 500,000 |
| 38 | 장영관 | 300,000 |
| 39 | No Name | 500,000 |
| 40 | 김호권 | 500,000 |
| 41 | No Name | 500,000 |
| 42 | 박수덕 | 300,000 |
| 43 | 김경희 | 300,000 |
| 44 | No Name | 500,000 |
| 45 | 이희은 | 300,000 |
| 46 | 이승현 | 300,000 |
| 47 | 이영신 | 300,000 |
| 48 | No Name | 500,000 |
| 49 | 안윤근 | 300,000 |
| 50 | 김화룡 | 300,000 |
| 51 | 석웅치 | 360,000 |
| 52 | 마영희 | 360,000 |
| 53 | No Name | 500,000 |
| 54 | 이진수 | 300,000 |
| 55 | No Name | 500,000 |
| 56 | 김만선 | 300,000 |
| 57 | 이지현 | 300,000 |
| 58 | 이지선 | 500,000 |
| 59 | No Name | 500,000 |
| 60 | 최인실 | 300,000 |
| 61 | 홍석영 | 300,000 |
| 62 | 이은진 | 300,000 |

# 긴급전화번호

| | | |
|---|---|---|
| 경찰<br>범죄 및 도난 신고 | POLICE (Polisi) | 112<br>110 |
| 소방서<br>(화재신고) | FIRE BRIGADE<br>(Dinas kebakaran) | 113 |
| 응급차 | AMBULANCE<br>(Ambulan) | 118<br>119 |
| 민간구급차<br>서비스 | PRIVATE<br>AMBULANCE<br>SERVICES | (021)7506001<br>=International SOS<br>(24시간대기) |

## ■ 전화번호 안내

시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외.....105, 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001, 008

##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따 공항 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550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14080
(Toll Jabotabek)

교통사고 Traffic Accidents.....1500669
NTMC(SMS Center).....9119

열차시간안내.....121
WAKAI 121.....081111 2111 121

##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과.....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터미날3).....021)8082 219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021)5031 1030
(공항).....021)8082 2291~2

##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47
수도고장 문의 (Palyja Jakarta).....1500223

# 개인회비는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인도네시아 한인 행려병자의 병원치료비와 불법 체류자의 한국 귀국에 필요한 항공편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사랑의 전화'를 통한 후원 등 여러분의 개인회비는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 |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 BANK KEB HANA INDONESIA |
|---|---|---|
| 계좌번호<br>(루피아) | Rp. A/C NO:<br>200-913-783689 | Rp. A/C NO:<br>220-200-5949 |
| 예금주 | YAYASAN WARGA KOREA | YAYASAN WARGA KOREA |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 주요기관

| | |
|---|---|
| 한국대사관 | 2967 2555 |
| 영사과 | 2967 2580 |
| 주발리분관 | 361)445 5037 |
|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 2967 2570 |
|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 574 1522 |
| 한국국제협력단 | 2992 1900, 2992 2100~1 |
| 코리아센터빌딩 | 525 6525 |
| 한국산업인력공단 | 527 2612 |
| 자카르타한국문화원 | 2903 5650 |
|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 5785 3030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5292 1302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2954 03357 |

## 한인단체

| | |
|---|---|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521 2515 |
|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 0812 1960 308 |
| 한국국제부인회 | 0817 110 234 |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 081511708882 |
| 한인니문화연구원 | 0816 1909 976 |

## 한인잡지

| | |
|---|---|
| 한인뉴스 | 521 2515 |
| 교민세계 | 739 9025 |
| 여명 | 9955 5859 |

## 교육기관

| | |
|---|---|
| 한국국제학교 (JIKS) | 844 4958-61 |
| 꿈나무학교 | 5579 4407 |
| 간디국제학교 | 690 9902 |
|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 7884 1226 |
| 싱가폴국제학교 (SIS) | 7591 4414 |
| (끌라빠가딩) | 460 8888 |
| 영국국제학교 (BIS) | 745 1670 |
|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 750 3640 |
| 북국제학교 (NJIS) | 453 1001 |
| 호주국제학교 (AIS) | 782 1141 |
| 일본학교 (JJS) | 745 4130 |
| 네덜란드국제학교(NIS) | 782 3929 |
| 독일국제학교(DSJ) | 537 8080 |
| TAIPEI 국제학교(JITS) | 452 3273 |
| SPH (땅그랑) | 546 0234 |
| (찌까랑) | 897 2786 |
| RICS | 7590 3342 |
|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 0812 971 2306 |
| LYCEE Int. FRANCAIS | 750 3062 |
| JIPS | 3004 2885 |
| JIMS | 744 4860 |
| PAKISTAN EMBASSY SCHOOL | 390 4137 |
| ACG 국제학교 | 780 5636 |
| ICSCE | 780 7313 |
|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 7590 8820/50 |
| Sinarmas World Academy(SWA) | |
| 시나르마스 BSD | 0812 8689 2897 |
| 시나르마스 Thamrin | 2993 7234 |

## 유치원

| | |
|---|---|
| Hansol Kids | 765 6588 |
| Brain School | 7179 4787 |
| Bambino (Cipete) | 227664497/7203356 |
| (Patra Kuningan) | 8378 3783 |
| 사랑 | 835 1540 |
| 성모 | 7884 2467 |
| 하나 | 844 5283 |
| 리틀램스쿨(자카르타) | 750 0739 |
| (끌라빠가딩) | 471 8047 |
| (땅그랑) | 558 7227 |
| 꿈나무유치원 | 5576 7509 |

## 골프장

| | |
|---|---|
| BOGOR RAYA | 0251)827 1888 |
| CENGKARENG | 5591 1111 |
| CILANGKAP | 8459 5687 |
| DAMAI INDAH [BSD] | 537 0290 |
| DAMAI INDAH [KAPUK] | 588 2388 |
| EMERALDA | 875 9019 |
| GADING RAYA | 546 7668 |
| GUNUNG GEULIS | 0251)825 7400 |
| IMPERIAL | 546 0120 |
| JABABEKA | 893 6148 |
| JAGORAWI | 875 3810 |
| KEDATON | 590 9236 |
| KEMAYORAN | 654 1156 |
| KRAKATAU | 0254)385 319 |
| MODERN | 552 9228 |
| PADANG GOLF HALIM | 800 5762 |
| PALM HILL | 8795 4888 |
| PANGKALAN JATI | 751 3326 |
| PERMATA SENTUL | 8795 1787 |
| PONDOK CABE | 740 5382 |
| PONDOK INDAH | 769 4906 |
| RAINBOW HILL | 0251)827 1212 |
| RANCAMAYA | 0251)824 2282 |
| RAWAMANGUN | 475 4732 |
| RIVER SIDE | 867 1528 |
| ROYAL JAKARTA | 8088 8999 |
| SEDANA | 0267)644 730 |
| SEDAYU | 5020 8088 |
| SENTUL HIGHLAND | 8796 0266 |
| SUVARNA | 0811 1586 873 |
| TAKARA | 549 6371 |

## 골프교습

| | |
|---|---|
| Easy Golf | 801 2048 |
| 골프투어 자카르타 | 7013 8166 |
| 심스골프 | 570 3063 |
| 배준원골프교실 | 781 7679 |
| PGA골프레슨(까라와찌) | 5577 8936 |
|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 0811 143 437 |

## 은행

| | |
|---|---|
|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 5790 8888 |
| 수출입은행 | 525 7261 |
| KEB 하나은행 본점 | 522 0223 |
|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 2995 1915 |
| 신한은행 | 2975 1500 |

## 가구

| | |
|---|---|
| 죠지언 퍼니쳐 | 2276 6887 |
| 아이니갤러리 | 581 4690 |
| 올댓티크 원목가구 | 0858 8831 1218 |
| 로만 인테리어 | 0811 847 699 |
| 그린 가구 | 0813 1000 8778 |

## 건설 / 설비 전기

| | |
|---|---|
| DASOM Indonesia | 2940 3042/5 |
| 건설 중장비 렌탈 | 08111 43437 |
| PT. SSA(종합건설) | 0812 1956 0188 |

## 꽃/화환

| | |
|---|---|
| 꽃과 좋은날 | 0811 846 174 |
| 나무플라워 | 0812 1314 2681 |

## 기타

| | |
|---|---|
| 에셀바틱 | 0813 1038 4812 |
| 자카르타 명상센터 | 0821 7777 9972 |
| 땅그랑 명상센터 | 0821 7777 9973 |
| 바람소주 | 0858 8831 1218 |
| 스폰지 | 7095 4771 |
| 아시아 진주 | 7278 8327 |
| Good Deal Gallery | 573 6233 |
|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 0813 9861 1388 |

## 노래방

| | |
|---|---|
| 팡팡노래방 & 치킨 | 720 7275 |
| Beat Box(끌라빠가딩) | 9773 4780 |
| IDOL가라오케(땅그랑) | 021 546 0840 |

## 렌트카/기사클럽

| | |
|---|---|
| 강남렌트카 | 0812 109 7631 |
| 서울렌트카 | 6870 9335 |
| 우리렌트카 | 0811 193 069 |
| 한성렌트카 | 889 0471 |
| 짱구기사클럽 | 7279 8233 |
| 링크렌트카 | 9583 1000 |

## 미용실/피부관리

| | |
|---|---|
| 레르아뷰티샵 | 0858 5111 1222 |
| 국제이용원 | 739 6129 |
| 뷰티 # | 520 4428 |
|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 547 5867 |
| 아마란스화장품 | 723 1537 |

변호사 이 웅

새강 SAEGANG 법무법인 새강 LAWFIRM SAEGANG

**인니 거주자/비거주자 관련 세무 소송 전문**
**대한민국 법원 비거주자 판정 다수 승소 경험**

변호사 약력
1989 서울대 입학
1997 사법시험 합격 (39회)
2000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
2023 현재 법무법인 새강
대표 변호사 (파트너)

법무법인 새강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08,
4층 (서초동, 케이원빌딩)
T. (한국)+82-10-3051-3670
(인니)+62-857-7577-1114
E. sabub89@hotmail.com

| | |
|---|---|
| JR SALON | 7279 7906 |
| Hair Perm | 7280 1404 |
| 닥터큐(피부미용) | 5696 7090 |
| 쟈르헤어 | 7279 6998 |
| Salon & Beauty Shop | 7278 6969 |

## • 변호사 사무소

| | |
|---|---|
| 이승민 법률사무소 | 525 5959 |
| P.A.K. 변호사사무실 | 797 6254 |
|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 520 7153 |
| K LAW 변호사 사무소 | 5785 3271 |
| 법무법인 인도양 | 527 3077 |

## • 부동산

| | |
|---|---|
| 그린 부동산 | 726 4949 |
| 2005뉴밀레니움 | 7082 0056 |
| 리츠부동산 | 6896 7249 |
| 대한부동산 | 0813 1447 6593 |
| 한국부동산 | 0811 876 204 |
| 대박부동산 | 08111 555 615 |

## • 병원

| | |
|---|---|
| 관준한의원 | 739 7854 |
| 뉴월드메디칼 | 7279 3809 |
|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 7280 1819 |
| 실로암 한의원 | 720 1779 |
| 미르한반병원 | 0856 9453 7974 |
| Central Clinic | 2709 9272 |
|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 725 3458 |
| 향림당 한방병원 | 720 7727 |
| Indo Dental (치과의사 정혜정) | 0815 1004 2004 |
| RS. BUNDA | 322 0005 |
| RS. GRAHA MEDIKA | 530 0887 |
| RS. MEDISTRA | 521 0200 |
| RS. M.M.C | 522 5201 |
| RS. PONDOK INDAH | 765 7525 |
| RS. Siloam (땅그랑) | 546 0055 |
| RS. Siloam (찌까랑) | 8990 1911 |
| Matahari Klinik | 722 6391 |
| Dokter Korea | 0815 8539 7777 |

## • 슈퍼마켓

| | |
|---|---|
| 뉴서울슈퍼 | 725 0520 |
| 뉴부산슈퍼(땅그랑) | 5940 0375 |
| 만나슈퍼(버까시) | 821 8705 |
| 무궁화 본점 | 722 2214 |
| 무궁화 땅그랑점 | 558 2214 |
| 무궁화 찌까랑점 | 0851 0075 2214 |
|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 723 3214 |
| 무궁화 뽄독인다점 | 7590 5488 |
| 무궁화 끌라빠가딩점 | 453 3624 |
| 무궁화 찌부부르점 | 2217 7281 |
| 무궁화 수라바야점 | 031-563 4645 |
| 무궁화 스마랑점 | 024-7640 4783 |
| 무궁화 반둥점 | 022-8200 1674 |
| 무궁화 꼬따 바루점 | 022-8680 2262 |
| 무궁화 족자점 | 0274-288 5156 |
| 무궁화 발리점 | 0361-475 2734 |
| 무궁화 보고르점 | 0251-831 5175 |
| 무궁화 즈빠라점 | 0813 2158 5673 |
| 무궁화 뿔루잇점 | 0811 841 4188 |
| 무궁화 마카사르점 | 0811 46 0678 |
| 무궁화 빈따로점 | 0821 2292 9591 |
| 무궁화 바땀점 | 0812 6664 8989 |
| 무궁화 BSD점 | 0811 1565 988 |
| 무궁화 빈딴점 | 0812 6664 8989 |
| 무궁화 PIK점 | 0813 8839 6190 |
|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 0811 5595 777 |
| 무궁화 가딩세르퐁점 | 0813 1630 5312 |
| 무궁화 빨렘방점 | 0813 9067 0995 |
| 무궁화 뽄띠아낙점 | 0812 5623 112 |
| 무궁화 꾸닝안점 | 0821 1448 0988 |
| 무궁화 꼬본주룩점 | 0813 8610 8800 |
| 무궁화 아마르따뿌라점 | 0815 9977 689 |
| 무궁화 롯데에비뉴: | 0811 870 386 |
| 무궁화 쯤빠까마스점 | 0818 839 846 |
| 무궁화 뽄독삐낭점 | 0811 8822 891 |
| 무궁화 솔로점 | 0858 0375 3035 |
| 무궁화 메단점 | 0813 7634 2842 |
| 무궁화 발릭바판 | 0821 4861 0000 |
| 우리슈퍼(버까시) | 8240 4575 |
| 월드마트 | 8430 2535 |
| 하나마트 | 8459 0064 |
| 한일마트 | 723 2086 |
| 한일마트(땅그랑) | 5577 8633 |
| K-마트 | 2277 5526 |
| KOREA MART(수라바야) | 031 734 3989 |

## • 식당

| | |
|---|---|
| 하나 | 0254-393 2146 |
| 가나레스토랑 | 0811 918 132 |
| 가야성 | 725 7373 |
| 가효(SCBD 점) | 5289 7044 |
| 강남 | 0812 2323 5119 |
| 강남스타일 | 2952 8443 |
| 홍대포차 | 726 4999 |
| 김삿갓 | 722 2230 |
| 대가 | 8459 2871 |
| 대감집 | 723 3315 |
| 대화 | 720 6091 |
| 락 | 5793 9211 |
| 마포 | 7279 2479 |
| 맛집칼국수 | 0821 1096 3483 |
| 명가면옥 | 0254-849 3571 |
| 면의전설 | 521 0230 |
| 명가면옥 | 2751 0800 |
| 미가 | 0818 85 8026 |
| 미스터 박 | 5140 1142 |
| 버까시 서울 | 8895 7604 |
| 베이징 | 0254-837 0242 |
| 보신명가 | 789 0220 |
| 본가 | 739 6229 |
| 삼원가든 | 2988 9505 |
|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 722 1852 |
| 설악추어탕2(끌라빠가딩점) | 2937 5435 |
| 소래포구 | 8990 5051 |
| 청기와 | 726 1924 |
| 청담가든 | 0815 7342 5802 |
| 청해수산 | 527 8721 |
| 토박 | 725 1135 |
| 한강가든 | 0813 1988 5751 |
| 한옥(자카르타) | 0812 1119 1991 |
| 한옥 | 0254-385 588 |
| 깜닭 | 4584 5837 |
| 다미 | 4585 0040 |
| 대장금 | 0816 885 956 |

| | |
|---|---|
| 마포갈매기 | 0812 9313 9503 |
| 명가면옥 | 8990 4552 |
| 미스터 사시미 | 4585 3484 |
| 미추홀 | 6583 1472 |
| 산정(찌까랑) | 2909 3454 |
| (땅그랑) | 547 3172 |
| 서울 | 4585 4454 |
| 설악추어탕 | 2937 5435 |
| 감미옥 | 5579 4612 |
| 강나루 | 5576 8222 |
| 강촌 | 5579 3681 |
| 꼬꼬따리아 | 0254 394 255 |
| 대가야 | 547 5511 |
| 명가면옥 | 552 2745 |
| 산들 | 5579 5821 |
| 상하이 | 5573 5550 |
| 산해진미 | 5577 8182 |
| 서울일식 | 546 0840 |
| 아리수 | 0254-781 0059 |
| 알리사 | 0254-60 1430 |
| 오리랑장어랑 | 5577 6457 |
| 용대리 (SCBD) | 021-5150 7734 |
| | 0812 5723 7627 (WA) |
| (Kelapa Gading MOI) | 021-2245 0964 |
| | 0811 887 5705 (WA) |
| 우리들 | 552 4047 |
| 조선민물장어 | 5573 3308 |
| 종가레스토랑 | 551 3273 |
| 청기와 | 0858 1377 3388 |
| 수하루 | 5577 8585 |
| 태능갈비 | 7055 0888 |
| 테라스 가든 | 8493 9321 |
| 한마당 | 5577 6770 |
| 산정 까라와치 | 547 3172 |
| 산정 찌까랑 | 2909 3000 |
| 산정 까북 | 3005 1650 |
| 유가네 | 2221 3392 |
| 본가 (족자카르타) | 0274 2831440 |
| 치맥 (족자카르타) | 0274 2831869 |
| 예원 | 021-7212-0533 |
| 찬찬 | 0812-1060-4848 |
| 숙달 | 0821-4007-7256 |
| 지원갈비 | 021-7212-0436 |
| 쭈꾸미도사 | 085775245314 |
| 홍콩반점 | 0812-2442-6092 |

## • 신문

| | |
|---|---|
|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 0812 1004999 |
| 한인포스트 | 4586 9199 |
| JAKARTA POST | 530 0476 |
| 자카르타경제신문 | 5290 0117 |

## • 안경원

| | |
|---|---|
| 옵틱무티아라안경원 | 5793 7969 |

## • 여행사

| | |
|---|---|
| 나래여행 | 5296 0749 |
| 하나족자트래블 | 0274 887 488 |
| 굿데이투어 | 4586 0598 |
| 그린관광 | 798 3322 |
| Red Cap | 5797 3397 |
| Rodem Tour | 4587 8833 |
| 마타아리 여행사 | 521 2212 |
| 부미관광 | 7279 0011 |
| 비자여행 Malaysiaro | 603 9274 1780 |
| 솔로몬투어 | 0813 1934 1000 |
| 싱가폴투어(비자) | 2903 6647~50 |
| 스카이투어 | 391 1381 |
| 153 TOUR | 5720 153 |
| 코리아트래블 | 230 3116 |
| 코인관광 | 720 7230 |
| 하나관광 | 520 2450 |
| 호산여행사 | 691 3602 |
| HAPPY TOUR | 2950 8903 |
| Inko Batam(바땀) | 0778 462 500 |
| 사랑투어 | 2912 5099 |

## • 인니어통역/번역

| | |
|---|---|
| Mrs. Lee | 021 743 2687 |
| CITRA | 781 7771 |

## • 의료기

| | |
|---|---|
| PT. CGM INDONESIA | 0811 155 652 |

## • 인터넷

| | |
|---|---|
| HANASTAR INTERNET | 2270 8282 |
| S-Net | 7080 7886 |

## • 인테리어

| | |
|---|---|
| AEGIS BLIND | 2943 3876 |
| H2 Stuff | 4586 7860 |
| KJ건축 인테리어 | 0821 2564 1777 |
| Living A&I | 7278 0704 |
| 로만인테리어 | 0811 847 699 |
| 아이니인테리어 | 0812 1928 5578 |
| 그린 인테리어 | 0813 1000 8778 |
| INNOMATE | 7919 2006 |
| 올댓티크 원목가구 | 0858 8831 1218 |
| INPLAN DESIGN | 0857 1198 6516 |

## • 운송 해운 이삿짐

| | |
|---|---|
| 소명통관 | 4585 9283 |
| 센다이 이주화물 | 8770 6361 |
| 아네카 트란스 | 520 4181 |
| 트란스 우따마 | 829 6218 |
|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 021 526 5512 |
| 페나스콥 로지스틱스 | 2902 3838 |
| CARGO PLAZA | 831 7779 |
| DHL | 7919 6677 |

| | |
|---|---|
| FIRSTINDO EXPRESS | 5296 0024 |
| PANTOS LOGISTICS | 8998 2855 |
| HAES IDOLA CARGO | 8591 8488 |
| HANINDO EXPRESS | 252 5123 |
| KORNET LOGISTICS | 8379 3455 |
| QCN | 7834 1190 |
| Wings Global | 4585 8053 |
| ZIMMOAH | 2937 5670 |
| WIKASA | 8379 1935 |

### • 자동차 정비소

| | |
|---|---|
| 벵켈 코리아 모터스 | 885 4034 |

### • 증권/보험

| | |
|---|---|
| 삼성화재 | 021 8062 2000 |
| 우리코린도증권 | 797 6210 |
| 클레몽종합금융 | 797 6363 |
| 메리츠코린도보험 | 797 5959 |
| 키움증권 | 5010 5800 |
| KDB 대우증권 | 515 1140 |
| KB손해보험 | 3199 0247 |
| 한화생명 | 727 88150 |

### • 컨설팅

| | |
|---|---|
| 오롬컨설팅 | 4585 4910/11 |
| 럭키비자 | 0813 1133 2122 |
| 글로벌컨설팅 | 7280 0524 |
| 두왕컨설팅 | 520 7153 |
| 우리컨설팅 | 7918 4239 |
| 컨설팅 21 | 799 6182 |
| 한생컨설팅 | 5290 0670 |
| KMAQA (ISO인증원) | 573 1576 |
| 비엔시 컨설팅 | 2278 0470/4013 |
| 한국컨설팅 | 0811 876 204 |
| OK컨설팅 | 0852 8185 5551 |

### • 인재채용

| | |
|---|---|
| OSSelnajaya(세르나자야) | 572 7214 |

### • 컴퓨터, IT

| | |
|---|---|
| 리콤컴퓨터 | 725 1606 |
| 컴퓨터 원 | 5576 5228 |
| 지텍컴퓨터 | 5696 7001 |
| 하나로정보통신 | 9260 0950 |
| 한비텔 | 8379 1144 |
| 인도웹 www.indoweb.org | 0811 888 9609 |

### • 택시

| | |
|---|---|
| SILVER BIRD | 798 1234 |
| BLUE BIRD | 794 1234 |

### • 하숙

| | |
|---|---|
| 경복궁하숙(리뽀찌까랑) | 081314157581 |
| 가딩 홈스테이 | 9661 5877 |
|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 0858 1341 3222 |
|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 0813 1514 9978 |
| 나인비즈니스 하숙 | 9940 5005 |
| 더블루 레지던스(찌까랑) | 0811 1979 170 |
| 블루하우스게스트하우스 | 0812 8051 3637 |
| | KAKAOTALK ID : theblueid |
| 둥지 하숙 | 3608 9316 |
| 리뽀찌까랑 하숙 | 0812 1066 7757 |
| 레져 게스트하우스 | 0811 143 437 |
| 모나리자 | 8990 9570 |
|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 0813 8059 1625 |
|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 0821 1336 1111 |
| 쉼터 하숙 | 726 8775 |
|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 0815 1780 3680 |
| 이모네 하숙 | 0818 964 946 |
| 엘지 게스트하우스 | 0812 100 7135 |
| 위자야게스트하우스 | 0815 1024 8888 |
| 한밭 | 830 9990 |
| 한울타리 | 739 5841 |
|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 723 8302 |
| 현대 하숙 | 0818 795 787 |

### • 항공

| | |
|---|---|
| 대한항공 (시내) | 521 2180 |
| (터미날3) | 8082 2198/9 |
| GARUDA (Call Center) | 2351 9999 |
| | 0804 1807 807 |
| 아시아나 항공 (시내) | 5031 1030 |
| (공항지점) | 8082 2291~2 |
| 싱가폴 항공 | 570 4411 |

### • 호텔

| | |
|---|---|
| 그랜드멜리아 | 526 8080 |
| 만다린 | 314 1407 |
| 물리아 | 574 7777 |
| 샹그릴라 | 570 7440 |
| 싸이드자야 | 570 4444 |
| 하야트 | 390 1234 |
| 크라운플라자 | 526 8833 |
| 술탄 | 573 8011 |
| GSI Hotel & Resort | 0858 8248 3211 |
| 자바 팔레스 | 2928 1111 |

### • 환전

| | |
|---|---|
| 굿-머니 | 5793 9990 |
| 그린환전소 | 0815 1423 0114 |
| 끌라빠가징 | 453 1166 |
| 사강머니체인저 | 5290 0233 |
| 위나머니체인저 | 7278 0929 |
| 뚜나스신암 | 797 6105 |
| 참피온머니체인저 | 4585 1158 |
| 환전 | 712 8556 |

## 반둥 (지역번호 022)

### • 식당

| | |
|---|---|
| 뉴캐슬식당 | 201 5007~8 |
| 명가레스토랑 | 200 7363 |
| 코리안하우스 | 203 1626 |
| 한국관 | 204 3069 |

### • 서비스업

| | |
|---|---|
| 뉴캐슬사우나 | 201 5007~8 |
| 반둥렌트카 | 0858-1111-4000 |
| 반둥한인부동산 | 0858-1111-4000 |
| 반둥컴닥터 | 0821-2222-6000 |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문회

### • 중/고교

| | |
|---|---|
| 강경상고(민병무) | 0818 879 149 |
| 경기고(구본찬) | 780 0204 |
| 경남공고(이봉규) | 0812 902 3800 |
| 경남중고(정낙현) | 0813 8293 8557 |
| 경동고(강성원) | 0812 8830 8566 |
| 경복고(노경인) | 0815 1901 0575 |
| 경북고(이병수) | 0816 181 3615 |
| 경성고(박영권) | 0813 8805 1296 |
| 경신고(김진태) | 7883 6372 |
| 경주중고(김홍규) | 0818 141 635 |
|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 0815 1428 9329 |
| 계성고(최상록) | 0811 249 038 |
| 광주고(선홍규) | 0813 1536 5223 |
| 광주 사레시오중고 | 548 5112 |
|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 527 0150 |
| 광주 금호고 | 0815 1903 5802 |
| 광주 진흥고(박호섭) | 0812 6666 3338 |
| 남성중고(임석균) | 515 9277 |
| 대구고(김현철) | 0818 718 535 |
| 대구대륜고(김우기) | 0812 8763 9907 |
| 대구 상고(김진우) | 825 0581 |
| 대구 영남고(오승현) | 0858 4653 6899 |
| 대광중고(이민규) | 0816 880 018 |
| 대원외고(권기훈) | 0877 7779 4668 |
| 대전고(윤내선) | 426 2954 |
| 덕수고(성기윤) | 0816 114 7364 |
| 동대문상고(곽기석) | 867 3837 |
| 동래고(박건우) | 0815 1902 4123 |
| 동성고(홍창형) | 0812 102 2670 |
| 동아고(여병철) | 0811 187 554 |
| 동인고(차명훈) | 0815 950 0461 |
| 마상고(김만수) | 0811 122 5239 |
| 목포중고(김용진) | 568 0517 |

오롬컨설팅
PT.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o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021) 2245 5879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밴드(김균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데일리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

## • 종교 단체

<기독교>

가나안 교회(이병우) 021-8911-7591
0821-1837-9995
꿈이 있는교회(김현준) 0821 2507 9069
땅그랑 교민교회(김재봉) 0815-1980-5788
사랑의 교회(이명호) 0815-7453-7254
자카르타소망교회(김종성) 021-739-6487
0813-1104-3000
의의 나무교회(이의덕) 0813-8181-5570
예사랑 교회(박병삼) 0815-1041-9991
인도네시아 열린 교회
(김용구) 0878-0844-5537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
(정형진) 0811-813-7529
자카르타 동부 교회
(김정우) 0815-1016-5670
자카르타 믿음 교회
(조광용) 0811-194-8291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
(김완일) 0811-192-7255
자카르타 중앙 교회
(어성호) 0813-8103-9768
자카르타 한마음교회
(고형돈) 0812-8983-1433
자카르타 한인 안디옥교회
(김종근) 021-750-9548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정효진) 0822-9898-0191
찌뜨라라야 은혜교회
(고재천) 0811-841-312
찔레곤 늘푸른 교회
(고재일) 0822-1361-2537
참빛교회(박윤길) 0813-1488-1753
한인열방교회(송광옥) 0811-951-762

**반 둥**

반둥 반석 교회
(박성규) 0813-2039-8285
반둥 아름다운 교회
(박성훈) 0813-2233-0119
반둥 한국인 교회
(이제우) 0811-2233-1515
반둥 한빛 교회
(김정래) 0821-1920-3495

**스마랑/족자**

스마랑 한인교회
(윤성득) 0812-134-1932
족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서인석) 0856-4366-6891
족자카르타 우리 교회
(김성태) 0812-2450-2126
한뜻교회(살라티가) 이기호
0298) 311 905
0812-1538-8515

**수라바야**

수라바야 한인교회
(박유신) 0811-3020691
수라바야 선교교회
(박명수) 0812-3537-3054

**메단&발리**

메단 한인 교회
(조원동) 0813-6120-1305
발리 한인 교회
(유호종) 0812-3676-8029
발리 세움 교회
(정문교) 0821-4764-8665

**깔리만탄**

발릭파판 한인교회
(이성헌) 62-8115400-863

---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

숭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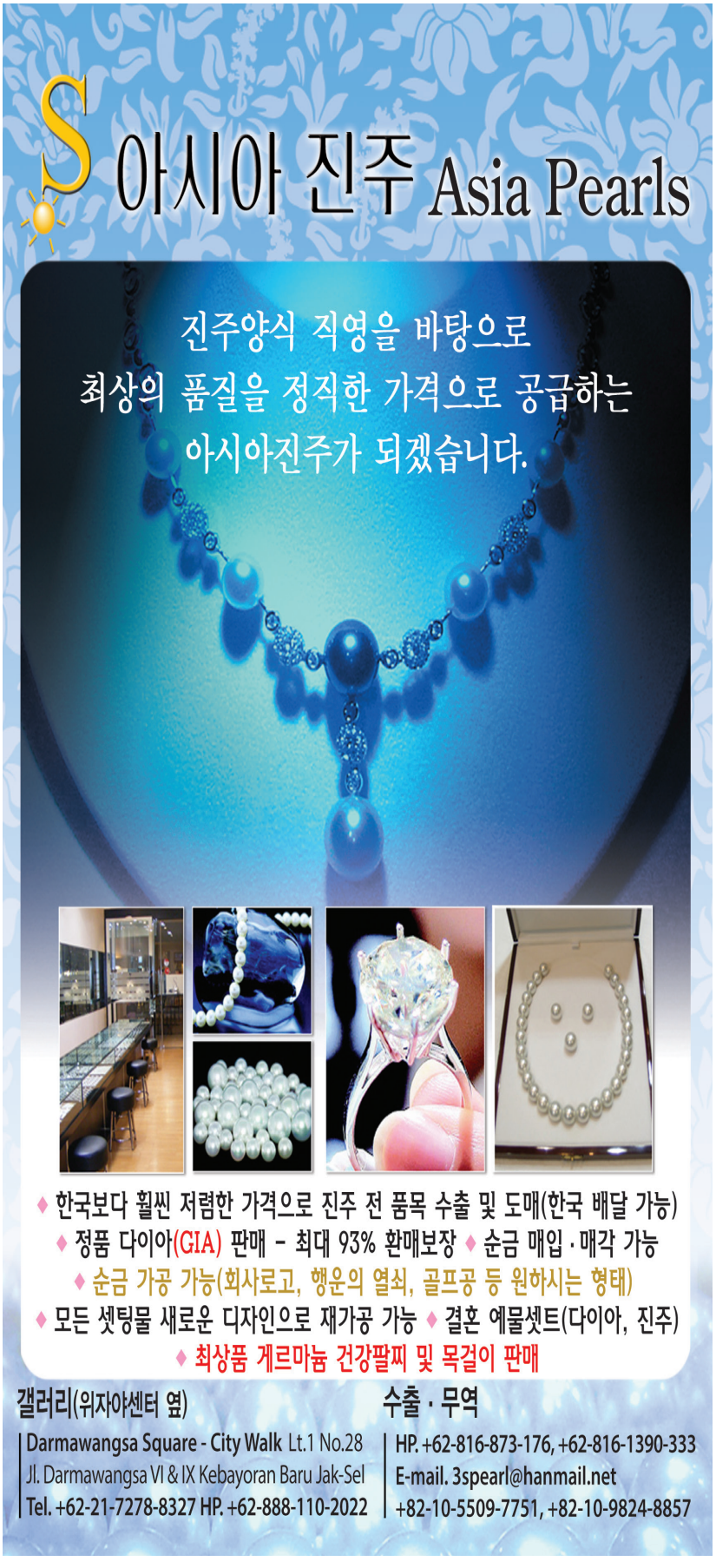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혜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윤)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윤)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군)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서울시립대(이승수) 0811 869 302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송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 번호 | 지역한인회 | 직 위 | 성 명 | 휴대폰 |
|---|---|---|---|---|
| 1 | 재인도네시아한인회<br>[ 0812-1960-308 ] | 회장 | 박 재 한 | 0816-825-931 |
| | | 사무국장 | 최 인 실 | 0812-9881-6816 |
| 2 | 발리한인회<br>[ 0822 1996 3355 ] | 회장 | 김 동 수 | 0811-394-551 |
| | | 수석총무 | 김 성 희 | 0811-398-976 |
| 3 | 반둥한인회<br>[ 022) 200-2154 ] | 회장 | 김 은 수 | 0812-8811-1733 |
| | | 사무차장 | 김 동 영 | 0811-2188-855 |
| 4 |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 회장 | 서 명 택 | 0821-7300-0120 |
| | | 총무 | 윤 진 만 | 0857-7825-6241 |
| 5 | 보고르한인회 | 회장 | (공석) | |
| | | 총무 | 임 성 필 | 0819-707-107 |
| 6 | 메단한인회 | 회장 | 홍 재 권 | 0812-8219-8638 |
| | | 총무 | 안 의 현 | 0811-610-3332 |
| 7 | 수까부미한인회 | 회장 | 김 흥 기 | 0811-980-337 |
| | | 부회장 | 최 종 섭 | 0811-114-2163 |
| 8 |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br>[ 031) 568-8690 ] | 회장 | 이 경 윤 | 0817-321-833 |
| | | 사무국장 | 이 대 섭 | 0812-1767-9007 |
| 9 |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br>[ 024) 7648-2020 ] | 회장 | 채 환 | 0822-2021-5725 |
| | | 사무총장 | 류 종 범 | 0812-2662-0902 |
| 10 | 족자카르타한인회<br>[ 0274) 497-761 ] | 회장 | 박 헌 두 | 0821-3595-5522 |
| | | 총무 | 조 경 민 | 0821-3342-8818 |
| 11 | 즈빠라한인회 | 회장 | 박 호 섭 | 0812-6666-3338 |
| | | 사무총장 | 조 영 성 | 0813-9032-3355 |
| 12 | 땅그랑반튼한인회 | 회장 | 채 만 용 | 0813-8621-5850 |
| | | 사무국장 | 허 미 숙 | 0821-8166-6137 |
| 13 |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 회장(권한대행) | 한 정 곤 | 0811-419-200 |
| 14 | 롬복 한인회 | 회장 | 박 태 순 | 0812-378-9841 |
| | | 총무 | 이 용 구 | 0812-3810-4649 |
| 15 | 칼리만탄 한인회 | 회장 | 나 성 문 | 0811-506-4579 |
| | | 사무총장 | 윤 상 원 | 0811-899-0101 |
| 16 | 찌까랑 한인회 | 회장 | 안 윤 근 | 0812-8164-8333 |
| | | 사무총장 | 송 영 한 | 0812-902-6148 |

www.palacejava.com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JAVA palace HOTEL

百年顧客

## hotelfacilities

- Borobudur Grand Ballroom
- Rama Ballroom I
- Shinta Ballroom II
- Meeting Room I - V
- Fitness Club
- Driving Range
- Garden Brasserie
- Bunker Cafe
- Coffee Shop
- Business Center
- Pool Bar
- PUB
- Swimming Pool
- Restaurant
- Sauna & Spa
- Money Changer


**Java Palace Hotel**
Jl. Niaga Utara Kav. 1-2
Jababeka II
Cikarang - Jawa Barat
17530 Indonesia
reservation@palacejava.com

Telp: (62-21) 29281111 | Fax: (62-21) 29287300 | : info@palace.co.id


## Benefit

**혜택**

**고주몽을포함한자바팔레스호텔내식음료할인**
- 15% 할인주류포함

**자바팔레스호텔스파**
- 마사지 20% 할인

**자바팔레스호텔골프연습장**
- 일반가격에서 30% 할인

**자바팔레스호텔헬스장, 사우나, 스파시설**
- 1년간무료이용

**자바팔레스호텔객실**
- 무료숙박권 3 매 (주말, Superior Room, 조식 2 인포함)
- 숙박 50%할인권 2매 (주말, All Room type)
- 숙박 20%할인권6매 (주중포함, All Room type)

**Seruni Coffee Shop**
- 생일당일무료생일케익제공 (사전예약필요)

Annual Fee
IDR. 4,500,000 nett

JOINNOW

0001

privilege

Richard Chu Member 8/15

KORINDO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福
올 한해 베풀어 주신 도움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린도그룹
www.korindo.co.id